

경남밀양형 일자리 모델,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김경수 도지사 "친환경 스마트 산업단지, 뿌리산업 새로운 발전모델 제시"

경상남도는 20일 '경남밀양형 일자리 사업'이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남밀양형과 강원형 모델을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했다. 지난 6월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2호 지정이다. 이날 영상으로 진행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직접 발표한 김경수 도지사는 "경남 밀양형은 노·사·민·정이 상생의 가치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 뿌리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친환경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뿌리산업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하며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밀양형 모델의 의미를 설명했다. 뿌리산업은 매출의 60% 이상이 자동차, 조선, 항공 등 주력 제조업에서 발생할 만큼 대한민국의 주력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산업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환경문제로 인한 뿌리산업의 입지불안정 문제와 인력난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다. 이런 뿌리산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민·정이 상생협력에 나섰다.

경남밀양형 모델은 3D산업인 뿌리산업을 IT화, 지능화, 첨단화를 통해 ACE산업으로 재탄생 시키는 복안이다. 기피시설 조성을 둘러싼 갈등을 노·사·민·정 주체 간 가치교환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 주민은 환경보전위원회 구성으로 환경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동의하고

노동자는 적정 근로조건과 거주지 이전 부담을 수용했다. 기업은 친환경설비에 대한 투자와 지역주민 우선 고용, 상생기금 마련, 동종업계 평균임금 이상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지원과 뿌리산업 경쟁력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용·노사상생·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두산중공업과 현대위아 등 대기업도 참여했다. 이번 모델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대기업의 1·2차 협력업체다. 대기업의 적정 납품단가 인상과 납품 물량 확대 약속은 대·중소기업 상생 문화 확산의 첫걸음이다. 경남밀양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이 결성한 협동조합 중심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다. 조합을 중심으로 공동 물류창고 설치, 공동 원자재 구입, 공동 계근대 설치 등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조합은 중국, 미국, 유럽 등 공동 마케팅과 해외 판로개척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중국법인 설립을 목표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경남밀양형 일자리는 밀양 하남일 반산업단지에 우선 2023년까지 8개 기업이 1,281억원을 투자해 245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는 18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추가로 실현할 계획으로 이를 감안하면 26개 기업의 총 투자금액은 3,403억원에 이르며 양질의 일자리 505개가 생길 전망이다. 뿌리산업은 소음, 분진 등 환경문제를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원천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뿌리산업의 혁신 성장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훼손 없는 친환경 설비와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공장 등 안전하고 깨끗하고 작업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노사민정 대타협에 기반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친환경스마트 뿌리산업 혁신플랫폼 구축 등 14개 사업에 1,3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뿌리산업의 혁신적인 변화와 공정개선을 위한 '친환경스마트 뿌리산업 혁신플랫폼 구축'과 '로봇기반 뿌리업종 스마트산단 조성지원',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된다. 특히 뿌리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투자세액 공제 우대, 중소기업 협동화자금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밀양 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 등의 지원도 뒤따른다. 경남밀양형 일자리 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 유발효과와 생산 3,556억원, 부가가치 1,242억원, 직접 고용 505명 및 직·간접 고용 1,055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이번 신규 투자가 경남 경제성장률을 0.11%p 상승시키는 성장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5년까지 505개의 직접 신규일자리 창출과 함께 직·간접적 총 고용효과는 1,055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여기업 대부분이 경남의 주력산

업인 기계, 조선, 자동차 등 연관 분야로 지역 전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남 밀양형 일자리에 대해 "인지·인력난의 이중고를 겪는 뿌리기업을 친환경·스마트 기업으로 변모시켜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선정된 지역에 대한 지원과 신규 모델 발굴 등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회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일이라서 경남밀양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만들어 뿌리산업의 생태계 활성화와 고부가가치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선정 소감을 전했다.

송인용기사는 "전남의 경우 농업어촌공사와 정부산업진흥원 등 협업 가능한 공공기관이 있어 잘 협업해 정부부지사를 단장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당부했다. 이어 "최근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판 뉴딜 2차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전남도의 해상풍력 관련 사업은 좋은 내용이었다"며 "송배전 공동접속설비 국가 지원, 지원부처 및 배후단지 조기 구축, 여러 부처를 인허가를 총괄할 해상풍력개발지원본부 설립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말하고 이런 건의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송인용기사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균형 뉴딜사업 철저히 대비해야"

필요시 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사업 좋은 사례 될 것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일 "내년 정부예산에 편성된 지역균형뉴딜이 국회서 포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가진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지역균형뉴딜이 정부안 자체에는 제대로 편성이 되지 않았으나 국회서 반영된 후 공모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을 잘 만들어 필요시 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사업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전남의 경우 농업어촌공사와 정부산업진흥원 등 협업 가능한 공공기관이 있어 잘 협업해 정부부지사를 단장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당부했다. 이어 "최근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판 뉴딜 2차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전남도의 해상풍력 관련 사업은 좋은 내용이었다"며 "송배전 공동접속설비 국가 지원, 지원부처 및 배후단지 조기 구축, 여러 부처를 인허가를 총괄할 해상풍력개발지원본부 설립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말하고 이런 건의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해 둘러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는 비록 실패했지만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인 추진 모멘텀을 살려 전남의 과학기술자문위를 통해 계속 이슈를 살려 나가야 한다"며 "반드시 대형방사광가속기 구축 문제를 전남이 요구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덧붙였다. 새로운 지역균형뉴딜 프로젝트와 관련해 김 지사는 "각종 정책개발을 통해 큰 사업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사업 등 작은 사업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까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줄 것"도 아울러 독려했다. 한편 김 지사는 "그동안 도민의 날 행사는 생활체육대회 개막식 부대행사로 치러졌다"며 "올해 도민의 날은 도민과 함께하는 축제, 자랑스런 우리 전남을 바로 알리는 데 중점을 뒀 도민들의 화합과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김영록기사

#스쿨미투_위드유 #텔레그램n번방 #학교성폭력 아웃

이탄희 의원, '성범죄클린학교법' 대표 발의

이탄희 의원이 스쿨미투와 N번방 등 성범죄 교사로부터 아이들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징계 심의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고 성범죄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성범죄클린학교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탄희 의원은 "스쿨미투 이후 2년이 지났지만, 학교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박사방에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모두 담임이었거나 담임인 교사들이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집계한 자료

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성폭력·강제추행·감금·성희롱 등의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 총 1,093명 중 절반 가량이 524명이 다시 교단으로 복귀했다. 두 명 중 한 명꼴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성비위 교사가 그대로 같은 학교로 돌아가 담임교사를 맡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2019년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6학년 여학생의 옷에 손을 넣거나, 엉덩이와 배, 허벅지를 만지며 성적인행을 한 비위사실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부 인정됐는데도 강등처분을 받았음에도 2020년 7월부터 같은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한 채 재직 중이다. 성 비위 사건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켜져야 할 원칙은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현장

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스쿨미투 제보자 섹출 등 2차 가해 또한 빈번하다. 2020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신고학생 섹출을 위해 가해교사가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와 신고자를 물색하는 일도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성비위 교사의 재범 사례도 다수라는 것이다. 경기도 한 고등학교 교사가 2016년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여학생들의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때리는 등의 성비위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다시 교단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2019년, 또 다시 다른 반 여학생들을 성추행하는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바 있다. 특히 사립학교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국·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당연히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성 비위에 대한 규정도 전

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는 성비위 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2019년 기준 배제징계는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보다 10%p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의 효과가 없다보니 사립학교 성 비위 건수 자체도 늘고 있어, 2014년 12건에서 2019년 104건으로 8.6배 증가했다. 이탄희 의원은 "피해학생으로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와 대면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즉시 벗어나는 게 시급하다. 그런데 가해자와의 분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징계 후 다시 마주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범죄클린학교법'의 주요 내용은 같은 학교 내의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과 같은 사안은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등의 즉각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온정주의가 존재하는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해 심의 과정에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비위 발생 시, 다시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스쿨미투는 피해 여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가 공개적으로 여성들을 희롱하는 걸 지켜보는 남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나. 우리나라에선 저래도 교사 할 수 있나보다 별 문제 없나보다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다. 남학생들의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한 게 그 방증이다. 이리니 N번방, 박사방이 없어졌는가. 학생에 대한 성비위 행위는 남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교사들의 집단적인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성범죄클린학교법"을 통해 아이들과 교사 모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

하고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사



김

진북

대파

올금

농수산물

진도 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볼

검색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이혁제 도의원, “대학부지 오룡지구 고교 투 트랙 추진한다”

이전 고교부지 활용 계획 미리 세워야 강조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은 제347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목포 옥암지구와 무안 오룡지구 고교 신·이설 추진 현황과 함께 이전 후 기존 학교의 활동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무안군에서는 오룡지구에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을 요청을 했고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목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 한 곳을 옥암지구로 이설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도 그를 위해서 의대부지로 묶어놨던 곳의 일부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 우리 교육청에서 는 두 트랙으로 오룡지구에는 신

설 그리고 옥암지구에는 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혁제 의원은 “그렇다면 이설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었던 그 학교 건물 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며 “현재 목포의 구 청호중학교 건물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전에 이전했던 구 제일여고도 지금 민간에 매각돼서 그대로 지금 방치

되어 있는 상태다 만약에 또 하나의 고등학교가 이전한다면 그 고등학교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고 원도심 주민들의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전 대상 학교로 거명되는 곳은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고 등이다 그런데 각각 두 학교는 역사를 갖고 있고 또한 구도심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설령 이설한다 하더라도 매각하지 않고 지자체와 함께 주민복합시설이라든지 해서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에 따라 향후 학교가 이전했을 때 그 부지에 아파트 신축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혁제 의원은 목포 신도심 중학교 임의배정, 고교이전 문제 등 목포

교육 불균형 문제에 대해 두 번의 토론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질문 등을 통해 꾸준히 집행부, 교육관계자, 목포시민들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또한 이전 대상 학교에 대한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원도심 주민들의 염려를 덜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영만기자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재정상황 안 좋는데 고액연봉·성과급으로 평평

91개 기관 부채 1조 1534억원, 14곳은 자본잠식 상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 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태가 악화일로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기관장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임직원들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부채가 5년 사이 2배 가량 폭증했다.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는 연도별로 2015년 6,339억원, 2016년 8,859억원, 2017년 1조75억원, 2018년은 9,064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9년 다시 1조1,534억원으로 급증했으며 부채기관도 85곳에서 91곳으로 증가했다.

이 중 14곳에서는 자본잠식이 진행 중이며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2015년 자본잠식 규모가 7,511억원에서 2016년 6,657억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이후 2017년 6,925억원, 2018년 7,921억원, 2019년 8,304억원으로 증가했다.문제는 일부 기관에서 적자가 심각함에도 기관장의 고액연봉 수령,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 36개 기관이 당기순이익 총 1,225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기관장에게 총 24억원의 연봉과 5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4등급’하위등급을 받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자본잠식이 4,381억원, 자본잠식률이 36%로 당기순이익 - 554억원 기록했지만 기관장 연봉으로만 2억원을 지급하고 임직원성과급으로 20억원을 썼다.‘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잠식규모 462억원, 당기순이익 - 40억원을 내기도 기관장은 9천만원을 받아갔고 업무추진비로 2천만원을 썼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자본잠식 12억원, 자본잠식률이 58%인데도 임직원 성과급으로 8억4천만원을 썼다.10억원의 적자를 낸 ‘성남산업진흥원’도 기관장 연봉으로 1억3천만원, 임직원 성과급 3억1천만원을 지급했고 ‘안양문화예술재단’도 11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성과급으로 2억여원, 업무추진비로 1천1백만원을 썼다.

김형동 의원은 “자본잠식과 적자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기관장들은 역대 연봉을 받아가고 있으며 임직원성과급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복기능·사업부진 기관들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통합으로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 ‘강화군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적극 추진 관련 시정질문’

농업·축산관련 국산신 필요

2020년 10월 16일 인천시의회 제 266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은 농·축산업부 관련 조직 확대와 강화군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에 대해 질문을 했다.윤재상 의원은 첫 번째 시정질문으로 과거 김포와 더불어 경기도 서부권의 한축이었던 강화군이 1995년 인천시 편입된 후 도시유주규제행정과 부족한 지원으로 지역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어 왔으며 지역정서나 주민의식 등에서 지리·역사·경제적 일체감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또한,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가축사육 두수가 가장 많고 매년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반복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축산업무를 전담부서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국 단위의 조직조차 없음을 지적하며 농·축산 업무를 대변하고 농·축산 업무를 총괄하는 농정국 신설을 재차 강조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2019년 기준 인천지역 도시가스 공급률 확대 방안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4.3%에 이르고 있으나, 강화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28%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윤재상 의원은 지난 2018년 8월, 제249회 제2차 본회의 중에도 도시가스 보급 확대 관련해 시정질문 한 바 있으며 당시 윤 의원의 질의에 박

남춘 시장은 “강화군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고 강화군의 도시가스 미보급 세대에 대한 연료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하고 도시가스 미보급 세대의 연료 지원방안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또한 윤재상 의원은 강화군의 면적이 인천시 전체 면적의 약 38.7%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도 인천시로부터 지속적으로 소외받고 있음을 토로하며 “강화군이 없으면 어떻게 인천광역시가 존재할까”며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군의 지역발전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 해 줄것을 당부했다.

김중남기자



김길용 도의원, 전남 e스포츠 육성 및 활성화 재촉

전남 새로운 먹거리 창출·청소년 여가문화육구에 적극 호응해야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은 지난 16일 도정질의를 통해 전라남도 e스포츠 육성과 활성화를 재촉했다.

김 의원은 “2019년 4월 도정질의에서 전남 e스포츠 육성을 촉구했고 6월에는 조례가 제정됐지만, 전남의 2020년 e스포츠 예산이 부산의 22분의 1수준인 4,000만원에 불과하고 내년도 집행부 예산안도 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라남도의 관심과 추진의지가 부족함을 지적했다.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연택트시대에 프로스포츠가 위기를 맞이한 반면, e스포츠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정부가 K-팝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콘텐츠로 육성할 것을 수차례 발표했다에도 전라남도는 ‘남의 일 보듯’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와 부산·광주·대전광역시 등은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구축 중이며 국내외 대회와 국제 학술제를 개최하는 등 과감한 투자와 발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전남은 정부지정

공인PC방은 1개 뿐이고 상설경기장 구축 추진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국내외 대기업들도 e스포츠의 폭발적 성장세를 보며 e스포츠팀을 창단하거나 공식후원사가 될 정도로 e스포츠는 새로운 먹거리산업이다.뿐만 아니라, 2019년 교육부 진로교육 조사결과, 초등학생 희망직업 6위를 차지할 만큼 청소년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청소년들의 관심과 욕구에도 적극 호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전남 e스포츠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 전남체육회, 전남드래곤즈구단 등과 긴밀히 협력해 ‘e스포츠 학교동아리 발굴·육성’, ‘2021년 도민체전 시범경기 채택’, ‘전남드래곤즈 홈구장을 상설경기장으로 활용’ 등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김영록 도지사는 “e스포츠산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안을 적극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특히 e스포츠는 젊은이들의 미래 스포츠라 생각하기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답변했다.

김영만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트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부회장 박상찬 /사장 박유석 / 편집국장:최계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경.가50079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계 부: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 스: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도, 페이퍼컴퓨터 제보자에 포상금 최고액 1천만원 지급

경기도가 불법하도급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퓨터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경기도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으로는 최고액이다.도는 지난 12일 2020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해 모두 60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2,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제보자 A씨는 전문건설업체 한 곳이 기술인력 1명도 없이 대표자 이름만 등록해 놓은 ‘가짜회사’ 이면서 00공사를 도급받아 전문건설업체에 일괄 불법하도급 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해당 제보는 사실로 확인돼 전문건설업체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A씨가 제보한 다른 종합건설업체 또한 기술인력 미달로 영영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가

짜회사’ 설립·운영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건설업계 관행을 뿌리 뽑고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말소 처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 최대 금액인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이와 함께 안마시술소에서 커튼 등 실내장식물에 방염처리를 하지 않고 내부구조를 변경해 비밀실을 만든 것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70만원, 노인요양시설 인테리어 목재에 방염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5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해당 시설이 노인·다중이용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만큼 도민 안전에 기여했다는 점이 평가됐다.

공익제보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는 최초로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제보자 B씨는 경기도 보조금 사

경기도, 60건 공익제보에 포상금 총 2,143만원 지급 결정

가짜회사 제보자에 포상금 최고 1천만원 지급

포상금 지급사례

- 1,000만원: 다중이용시설 방염처리 위반 신고, 방염처리 미흡 방염 등
- 70만원: 노인요양시설 인테리어 목재에 방염처리 미흡
- 50만원: 노인·다중이용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만큼 도민 안전에 기여했다는 점
- 50만원: 종합건설업체 기술인력 미달로 영영정지 처분
- 50만원: 전문건설업체 대표자 이름만 등록해 놓은 '가짜회사' 신고
- 40만원: 전문건설업체 기술인력 미달로 영영정지 처분

업 공공일자리에 채용된 사람이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고 제보했다.도는 제보된 지역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20개 시군 전체를 지도·점검해 수당 중복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했다.또한, 해당 시설 복무확인시스

템을 지문인식시스템으로 교체해 재발을 방지토록 했다.이밖에도 버스 불법감차 등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신고 등 환경오염 행위 등 공익제보 60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

급된다.

공익제보란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도는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누구나 손쉽게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포상 규정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339명의 공익제보자에게 1억765만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이 지급됐다.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

정경기 2580’에 신고하면 된다.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한편 2020년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서 총 964건의 제보가 접수됐다.제보를 통해 공무원 부패행위 등에 대한 처벌도 이뤄졌으며 공익제보 위탁조사를 탄탄하게 한 공무원을 적법해 징계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익제보를 통해 도민의 안전 침해 행위는 물론 공정한 거래질서 방해 행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찬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상처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로 실시되었습니다

경북교육청, '행복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등 다양한 인성교육 강화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정책 펼쳐

경북교육청은 장기간 원격수업으로 인한 대면 생활지도 부족에 따른 인성교육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다양한 인성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은 실천·체험 중심 인성교육을 기본으로 유튜브, SNS 등 온라인 환경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의 인성교육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북교육청은 원격수업이 지속되면서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개 권역 인성교육지원센터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인성인문학교육지원센터에서 공예, 다도, 천연염색, 저자와의 만남 등을 주제로 15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원격수업 시 실시간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하고 온라인 활용 칭찬 릴레이, 시낭송, 도전 성

취프로그램 등 쌍방향 소통의 인성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원격수업으로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도 강화한다.

학부모 집중 상담주간을 학기별 1회 이상 1주일간 운영하고 초등학교 입학생 학부모를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온라인에 탑재할 예정이다. 조부모와 손자녀의 소통을 위해 실시한 '세대공감 편지쓰기'는 48,000여통이 접수됐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행복한 학교 만들기' 현장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 8일 예천초에 이어 지난 15일 안동송현초에서 등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 캠페인은 선플달기, 바른말 고운말 쓰기, 칭찬하기 등을 주제로 실시했다. 현장 캠페인에 참여한 임종식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



회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성역량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추어 학교, 가정, 사회가 지속적으로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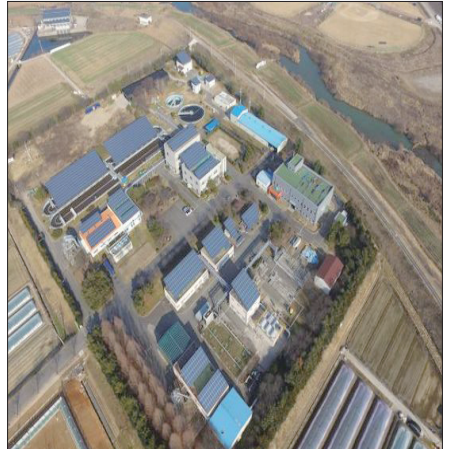
의령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추진

의령군은 안정적인 하수처리기반을 마련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의령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 및 분뇨처리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 20년 단위로 목표를 수립하며 필요 시 5년마다 여건변화를 반영해 하수도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 변경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적정성 검토, 하수관로 시설 확대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정 등 하수도 인프라 시설 확충을 이번 기본계획 변경 시 반영한다. 군내 각종 개발계획과 연계한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은 하수 사용 원단위 및 계획인구를 조정하고 관광 오수량 반영을 통해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된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재검토한다.

그리고 낙동강, 남강 등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면지역 하수처리구역 확대, 하수관로 시설 확충, 차집관로 불량구간 정비계획, 기존 관거의 문

제정 분석을 통한 해소방안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금번 수립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오는 2040년까지의 의령군 하수도 정책의 나침반이 되는 만큼 달라지는 여건변화를 꼼꼼히 반영·검토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며 "적재적소에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하수도 정책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영기기자



시흥시, '물왕저수지 환경 정화의 날' 개최



시흥시는 지난 17일 물왕저수지 주변 환경 정화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환경정화에는 시흥시지속발전재단, 시흥시해병대전우회, 시흥시청 마린동아리,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목감동총연합회, 상인연합회, 환경정책과, 목감동행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40여명이 함께했다. 올 여름 장기간 이어진 장마와 태풍으로 대량 유입된 저수지 내·외부 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했다. 그간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안전상 문제로 쓰레기 수거에 어려

움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보트, 스킨스쿠버 활동을 통해 저수지 내부 쓰레기를 육상으로 끌어올려 처리할 수 있었다.

또한, 장대석 도의원 및 송미희 시의원과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임직원, 목감총연합회, 환경정책과, 목감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산책을 청소하며 향후 저수지 환경개선에 선사업에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대형 폐기물은 향후, 물왕저수지 수변대

크 산책로 조성공사를 위한 저수지 배수가 완료되면 장비를 이용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순필 시흥시 생태하천과장은 "아름다운 물왕저수지 위에 동동 떠있는 쓰레기가 항상 맘에 걸렸는데, 여러 유관단체·기관·부서가 힘을 합쳐 처리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매년 정기적으로 행사를 진행해 더욱 깨끗한 물왕저수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오산시 제6회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고이적어 나빌레라' 성료

오산시는 한글날을 맞아 문해교육 참여 어르신들이 글과 그림으로 풀어낸 작품을 모아 제6회 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고이적어 나빌레라"를 지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오산시청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작품은 지난 9월에 교육부가 개최한 '2020 전국문해교육 시화전'에 출품작 중 수상작 12편, 오산백년학교학교 30편,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10편, 오산종합사회복지관 12편 등 수상작 총 64편이다. 작품은 문해교육 학습자들이 자기 삶에 관한 이야기와 세상에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글과 그림으로 담겼으며 배움에 대한 열정을 쏟고 있는 어르신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느낄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지친 가족과 이웃에 대한 위로 과거 힘들었던 시절 글을 몰라 겪었던 설움, 뒤늦게 배움의 즐거움을 찾고 새 인생을 살아가며 느끼는 행복 등 다양한 감동 스토리도 시화 작품에 담겨있다. 문해교육의 중요성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작품 전시와 관객들이 작품을 전



시한 늦각이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는 이벤트가 함께 진행됐다. 오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오산백년한글학교라는 이름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성인문해교육은 글자를 읽지 못하는 분들에게 단순히 글자를 읽고 쓰게 하는 수준을 넘어 평생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문해교육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4.6의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이번 전시회는 SDGs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시도 함께 진행됐다. 오산시 관계자는 "뒤늦게 한글을 배우신 어르신들의 서툰지만 정성이 담긴 글과 그림은 세계 어떤 명작보다 더 큰 감동을 준다"며 "문해교육에 참가하신 어르신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배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남주기자

창원시, 민·관·군 합동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참여기업 45개사, 190명 채용 예정

창원시는 언택트 채용확산에 맞춰 '2020 민·관·군 합동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오는 10월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24일간 www.jobgogo.kr 에서 개최한다.

'2020 민·관·군 합동 온라인 채용박람회'는 창원시, 방위사업청, 대한민국 해군 이 공동 개최하며 방위사업 관련 기업 및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45개사가 참여해 190여명의 채용인원을 모집한다.

이번 온라인 채용박람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기업의 채용정보 검색과 이력서 제출부터, 온라인 면접까지 간편하게 구현한 비대면 구인-구직 매칭시스템이다.

주요 내용으로 온라인 채용관 온라인 채용설명회 NCS 온라인 모의고사 AI 모의면접 인성검사 직업심리검사 취업특강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로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내며 2020 민·관·군 합동 온라인 채용박람회가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취업성공의 길을 열어주고 기업에는 내일의 성장을 이끌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용호기자

유튜브 활용 강좌·다양한 이벤트 진행. 흥미 돋워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10월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기념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봉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으며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기념행사와 비대면 응원메시지 이벤트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 기념행사로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조현병, 바로알기'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고 '정신질환 회복을 위한 즐거운 코로나19 생활' 브이로그 영상을 게시했으며 영상 시청 후 댓글달기 참여자와 '조현병' 관련 OX퀴즈 정답자에게 추첨을 통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지역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버스정류장 7개소에 비치된 응원카드를 받고 나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를 작성하는 비대면 응원메시지 이벤트도 진행됐다. 특히 응원메시지 이벤트 참여자 중에는 15명을 선정해 소정의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매년 10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고 편견해소를 위해 올바른 정보를 알리나가기 위해 제정한 '정신건강의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부터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조성일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코로나

나19로 지친 지역주민들이 비대면 방식의 이벤트를 통해 잠시나마 기분을 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정신건강의 날을 계기로 지역주민 모두가 나와 타인

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고 더불어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용기자

전북도, 국회예산심의前 “국가예산활동지휘부 동시출격”

전북도가 오는 10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예산안 관련 상임위 심사가 예정돼 있어 주요 도정 현안 사업에 대한 국회 단계 증액을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다.

19일 최훈 행정부지사는 세종정부청사를 찾아 기재부 2차관 등 기재부 핵심인사를 면담했고 우범기 정부부지사는 서울 국회를 방문해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을 만나서 2021년 국가예산 반영과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최훈 행정부지사는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한훈 경제예산심의관, 김완섭 사회예산심의관, 이용재 복지예산심의관 등 기재부 예산 키텀을 차례로 만났다.

서 한국판 뉴딜 연계사업, 주력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신산업으로 미래 먹거리 준비, 전북 역사 문화 재조명을 통한 여행체험 1번지 구축,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사업 등 주요 도정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단계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김성주 의원, 이원택 의원, 김수홍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유동수, 강병원, 이종성 등 연고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차례로 만났다.

우 부지사는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와 감염병 위기 대응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대학원이 신속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공공의대법 통과 등 주요 현안 해결에 도움을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도 국회단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점 필수 예산사업에 대해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에 설명하고 전북도와 정치권이 함께 국회 단계 증액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전북도는 오는 21일부터 도와 시군 합동으로 국가예산 베이스캠프를 국회에 차리고 주요사업 삭감방지와 증액사업 반영을 위해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한다.한편 10월 27일에는 광주광역시에서 국민의힘, 10월 28일에는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정치권과 공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지휘부가 국회 의결이 확정되는 12월 초까지 국회, 기재부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송일/기자



고흥갑재민속전시관 ‘민속전시실’ 새롭게 단장

고흥의 사계절에서 선조들을 만나

고흥군은 고흥의 전통 민속·생활문화를 보다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고흥갑재민속전시관 내 유휴공간에 ‘민속전시실’을 신규 설치해 오는 20부터 상설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번 추가된 민속전시실은 공간별·세대별로 전시되던 기존 근·현대 고흥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절별 생업활동 세시풍속을 통해 더욱 상세히 보여주어, 고흥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자 했다.

고흥의 사계절 별로 고흥의 봄, 품부함 먹거리 높게 흥하다 고흥의 여름, 전통의 대물림 손으로 전해지다 고흥의 가을, 수확의 기쁨 함께 나누

김영만/기자



경남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 삼양식품 신공장 유치

삼양식품… 익산, 원주 이어 30년 만에 경남 밀양에 제3공장 건설

김경수 도지사는 19일 오전 삼양식품(주)의 밀양 신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30년 만의 공장 신설을 축하하고 참석한 기업인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했다.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단지 내 공장 부지에서 진행된 이날 착공식에는 삼양식품 김정수 총괄사장과 정태운·진중기 대표, 김경수 도지사, 김하용 도의회의장, 박일호 밀양시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삼양식품의 성과보고와 환영사, 축사, 기념축포 공연,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삼양식품의 밀양나노산단 입주 성과는 경남도가 기업 유치를 위해 한자리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해 투자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기업 수

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투자 지원을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다.도는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투자가 조기에 완료되고 안정적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지난해 12월 경남도는 밀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경남도 투자기업 감사의 날’에서 삼양식품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삼양식품의 투자이행 의지에 경남도와 도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밀양시의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더해져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날 착공식을 갖기에 이르렀다.삼양식품은 착공식을 시작으로 총 2,074억원을 투자해 2022년 1월 준공, 4월 상업 생산을 목표로 연면적 69,801㎡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공장을 신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밀양 신공장에는 면·스프 자동화 생산라인, 수출 전용생산라인 등이 구축돼 완공 시 연간 최대 6억 개의 라면을 생산하게 된다.

이번 밀양 신공장 투자는 창립 이래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삼양식품의 신성장동력인 해외수출 분야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밀양 신공장의 지속적인 설비 증설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앞세워 세계적인 식품 기업들과 경쟁하며 한국음식의 위상을 높이는 세계 식품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복안이다.이에 더해 삼양식품의 이번 투자로 150여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착공식에 참석한 김경수 도지사는 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산단공, 지역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삼양식품이 밀양나노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것이 모두에

게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신공장 착공 의미를 부여했다.김 지사는 “경남과 밀양 지역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또한 최근 나노기술이 식품분야까지 확장되고 있고 인근 경남과 부산, 울산의 식품 관련 지식기반과 원료 재배, 부산신항을 포함한 동북아물류중심도 수출기업 삼양에 새로운 계기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호/기자



‘마스크 쓰GO 운동’대구를 넘어 전국으로

“먹고 마실 땀 말없이, 대화할 땀 마스크 쓰GO” 대국민 안전안내 문자로

20일 중앙재난대책본부는 대구에서 전개하고 있는 “먹고 마실 땀 말없이, 대화할 땀 마스크 쓰GO” 슬로건을 대국민 재난안전 안내문자로 발송했다.대구시는 지난 2월 말 신천지발 코로나19 환자자 지역 내 폭증하면서 ‘코로나의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그러나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가 쏟아졌음에도, 대구만큼은 한동안 ‘예외’였다.지난 7월 3일 1명의 확진자를 마지막으로 8월 15일 0시까지, 43일간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0명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43일간 0명’의 비결은 첫째도 마스크, 둘째도 마스크에 있다.확진자 0명 행진이 43일간 이어진 배경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고집스럽게 추진한 대구시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대구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어우러진 결과다.그동안 대구시의 마스크 쓰GO 운동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4월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해 각계 각종 시민대표 200여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극복 대구광역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정부의 개인 방역 5대 기본수칙에 포함되지 않은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대구시 7대 기본생활수칙’에 포함하면서 시작했다.이어 5월 5일에는 모든 시민들에게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강

력히 권고하면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5월 26일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지침을 통해 전국 시도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8월 2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대구 전역에 적용하는 행정명령과 음식점 등 사업주에게 이용객이 음식 섭취 시 외에는 항상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고지하는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를 시행했으며 9월 1일부터는 마스크 쓰기가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역 대책이라고 보고 “먹고 마실 땀 말없이, 대화할 땀 마스크 쓰GO”라는 범시민 마스크 쓰GO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마스크 착용의 효과는 이미 여러 차례 사례에서 증명된 바 있다.지난 7월 당시시 중대 등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학교에서 접촉한 325명 모두가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추가 감염자가 없었으며 8월 북구 소재 빌딩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27명 중 마스크를 상시 착용한 1명만이 감염을 피한 사례 등 마스크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다양하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마스크는 나를 보호하고 남을 배려하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 무기이자 사회 무기다. 먹고 마실 땀 말없이, 대화할 땀 마스크 쓰GO 운동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순천시, ‘제7회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 개막

70대·50대 만학도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눈길

순천시는 지난 17일 연향3지구 어린이공원에서 ‘제7회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개막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 및 정원 조성 참가자, 인근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했고 코로나 19의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진행됐다.

개막식은 허석 시장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정원조성 참가자들의 참가 소감, 부대프로그램 우수 참여자 시상상을 진행했고 정원조성 참가자가 정원을 직접 해설해주는 ‘도슨트 정원투어’를 진행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특히 학생부 ‘안전4거리 정원’의 청암지킴이, 이은정은 “평소 쓰레기 무단투기가 잦았던 횡

단보도 인근 인도부지에 정원을 조성하며 학교를 오가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은 물론 연향3지구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이렇게 꿈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만학도의 열정으로 많은 배움의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내게 ON 가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일반부 19개, 학생부 19개, 리뉴얼부 36개 총 74개 작품이 10월 30일까지 순천 도심 전역에서 전시경연을 펼칠 예정이다.허석 순천시장은 “지난 6년 동안 국가정원 안에서 진행하던 한평정원 페스티벌 행사를 시 구석구석에서 함께 즐길 수 있게 준비했다.우리 시민 모두가 정원사가 되는 그 날까지 순천시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장흥군서 ‘스포츠인 교육 백년대계’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건립 비전 선포식, 기념식 제막식 개최

20일 전남 장흥군에서 ‘스포츠인 교육 백년대계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장흥군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건립을 알리고 미래 스포츠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비전 선포식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권영록 전라남도지사, 정종순 장흥군수를 비롯한 80여명이 참석했다.대한체육회는 이날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이란 정식 명칭과 ‘체육인 교육의 요람,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란 슬로건을 발표했다.비전 선포식에서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 과제, 추진 전략과 비전 로드맵 제시됐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참석 인원을 줄여 온라인 화상연결을 통한 ‘온

택트’ 비전 선포와 세레모니도 마련됐다.스포츠 교육 목표와 비전을 공유할 선수, 지도자, 심판, 동료인 등 전국의 스포츠인이 온라인 화상으로 비전 선포식을 지켜봤다.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홍보를 위해서는 스포츠 가치를 선도하는 인재로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한 미래형 교육장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했다.장흥군은 올해 2월에는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최종 후보지로 낙점됐다.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은 전국 체육인들의 교육연수와 동·하계 전지훈련의 중심지로 사용되는 시설이다.장흥군은 2차전까지 이어진 후보지 선정 평가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선정의 쾌거를 이뤘다.장흥군은 초반부터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내비치며 장점으로 부각된 넓고 쾌적한 부지, 사계절 온화한 기후, 접근성 등을 강조했다.

정종순 군수는 대한민국 체육인재



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 브리핑에 실시하는 등 유치전의 전면에 나섰다.종합적인 검토 끝에 장흥군은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입지에 최적의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약 370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16만㎡, 건축규모 2만5천㎡ 규모의 시설이 들어선다.교육시설, 숙박시설, 편의시설,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운동장 등의 실내·외 체육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정종순 장흥군수는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이 스포츠의 가치와 교육 비전을 모두 담아내는 미래형 교육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장흥군도 이 같은 교육 비전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길/기자

‘마스크 쓰GO 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먹고, 마실 땀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GO!

마스크 쓰GO 운동

2020년 8월 23일(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 및 마스크 미착용으로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을 구상 할 수 있음

2020년 9월 1일부터부터 일반시민들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 및 종사자는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시행, 고지 의무 위반 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조치

대구광역시

구로구, 은행나무 열매 조기 채취

‘은행 채취 기동반’ 운영 ... 낙과 이전 수거 완료 목표로 작업 실시



구로구가 은행나무 열매 조기 채취 작업에 나섰다.

구로구는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와 미관 저해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낙과 이전 수거 완료 목표를 목표로 채취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은행 채취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 기동반은 고소작업차, 소형트럭, 엔진 수확기 등 장비를 활용해 관내 은행나무 837그루를 대상으로 채취 작업을 진행한다.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수거 작업도 펼친다.

구로구는 수거한 은행 열매에 대해 선별, 건조, 중금속 함유 검사 등을 거쳐 구로 희망푸드마켓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구는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5,000여 만원을 투입해 버스 승강장, 상업 밀집지역

을 중심으로 암나무 30여 그루를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수나무로 교체한다. 현재 관내 암나무는 전체 은행나무 3,613주 중 837그루로 23%를 차지한다.

구는 관내에 있는 모든 암나무를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은행나무는 아

름다운 단풍으로 도심 속 가을의 정취를 더해주고 공기 정화, 병충해 방지 등의 역할을 하는 이로운 나무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장점을 살리면서 악취로 인한 민원 불편은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서만훈 고성부군수, 가을 적조 방제현장 점검

서만훈 고성군 부군수는 지난 16일 고성 하이면 해역에서 발생한 유해성 적조 방제현장을 방문해 방제 작업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서 부군수는 하이면 해역의 어업현장을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방제선을 동원해 적조 방제작업에 힘쓰는 어업인과 관계공무원을 격려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지난 7월 초 적조발생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어류 양식장에 대한 사육량 조사, 방제장비 일제조사 및 어업인 특별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지속적으로 적조예찰을 실시해 적조발생에 대비해 왔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10월 14일 오후 6시를 기해 하이면 해역에 적조 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초기 적조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날부터 즉시 방제장비 및 방제선을 투입해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긴급 조동대응에 이어 고성 연안 전체 해역에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적조 발생상황을 신속하게 어업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양식어장에 대한 산소공급, 사육 밀도조절,



사료공급량 조절 등 어장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은정 어업생산담당은 “적조 발생 이후 적조 대응상황실 가동·어장

관리 지도반을 운영하는 등 어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인용/기자

본격 수확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

야광 반사판 부착 등 안전수칙 준수해 사고 예방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보관 중이던 농기계를 점검 정비하고 도로 주행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당부했다.

수확철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면서 경운기, 트랙터, 예초기, 관리기 등의 순으로 교통사고 전도, 추락, 과적, 과속 등 운전부주의와 안전수칙 불이행, 정비 불량 등의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농기계 도로주행 시 도

로교통법을 준수하고 교통사고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농기계 임대교육 때 나눠준 야광 반사판을 농기계 뒷면에 부착해 저녁 시간대 교통사고의 위험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지원과 김규환 과장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던 농기계를 정비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농기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농기계 사용 전 충분한 점검과 함께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정몽호/기자



여수시, 식품제조가공업소 수입원료 사용실태 점검 나서



10월 19일~21일까지, 공무원 2개반 4명 점검반 편성

여수시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한 자사제조용 식품 원료 사용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자사 사용 식품원료를 수입한 식품제조가공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2개반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입 원료를 자사 식품제조 원료로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원료 수입 및 사용, 재고내역 기록 관리 여부 원료 보관 창고 내 적정 보관 상태 여부 식중독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설 방역 및 예방 수칙 안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수입 원료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반 내역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남동구, 홀덤펀업 음식점 게임대회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인천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최근 홀덤펀업 음식점에서 코로나 19 감염증 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게임대회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다중이용시설 일방음식점에 내려진 150㎡이상 의무화 핵심 방역수칙보다 더 강화된 조치로 홀덤펀업 음식점을 대상으로 면적과 상관없이 행정명령을 지켜야 한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홀덤펀업 업소는 여러 업소를 이동해 각종 대회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장시간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어 3일에 해당된다.

이에 구는 1단계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으로는 코로나 19 감염증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해 기존 방역수칙에 홀덤펀대회 집합금지 및 추가된 방역수칙으로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됐다.

구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선제적 예방조치로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 발행시기 : '20.9.1.부터
-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관내 농협 방문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직장인 소득공제 30%
- ☎ 339-8822
-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이천시, 특산물 홍보전용 영상차량. 열렬한 호응 속 추가운영

10월 8일·15일 이천쌀·도자기 경품행사 성공적. 설봉공원에서 24일·31일 추가 행사 예정

이천시와 이천쌀·인삼·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과 15일 홍보전용 영상차량 경품행사가 뜨거운 반응을 보이면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자 오는 24일·31일 설봉공원에서 추가 홍보 활동을 벌인다. 시와 추진위는 지난 10월 8일과 15일 이틀간 홍보 전용 영상차량은 중리사거리 일원, 장호원 파출소 주차장, 부발 역사 광장을 돌며 이천쌀과 이천인삼 등 특산물 홍보를 진행했다. 이천시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블루로 위축된 시민들에게 이천 신제품 햅쌀 해들 500g 1포·이천 도예인이 만든 예쁜 도자기 컵 증정 등 경품행사를 진행해

즐거움을 선사했다. 각 장소별 준비된 경품 소진시간이 예상보다 짧았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과 참여가 이어졌다. 이천시는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홍보전용 영상차량을 10월 24일과 31일 설봉공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추가 운영한다. 기존 쌀문화축제 및 인삼축제 기간에 행사를 운영해, 2년 연속 주요 축제 취소에 따른 시민들의 아쉬움을 달랠 예정이다. 이번 행사 경품은 이천 도자기 2개, 이천쌀 가래떡, 이천햅쌀로 더 풍성하게 구성된다. 단, 경품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3가지 경품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행사 마감 시간은 남은 경품 수량에 따라 결정되니, 시민들은 행사 시작 시간을 유념해 경품행사에 참여하면 된다. 이번 추가행사도 대기 시 1m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등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운영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축제 대체행사로 마련한 홍보 전용 영상차량 경품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셔서 뜻깊다"며 "24일·31일 2일의 행사 기간 동안에도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상찬기자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스카이어닝 설치

쾌적한 쇼핑환경 전통시장으로 정보러 오세요

동작구가 이달 말까지 남성사계시장 여름길 구간에 우선 시 사고위험 방지와 시장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스카이어닝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남성사계시장은 시장이용 주민과 유동인구가 1일 평균 1만 5,600명에 달하는 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으로 현재 140여 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취급품목에 따라 봄·여름·가을·겨울 사계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여름길은 1차 식품 취급점포가 집중되어 혼잡한 구간으로 차양막 등 개별 상점 시설물로 인한 통행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요소가 있어 왔다. 구는 문제점 보완을 위해 남성사계시장 문화관광형 사업 일환으로 이달 말까지 여름길 구간에 폭 5m, 길이 60m, 높이 6m 크기의 스카이어닝을 설치한다. 남성사계시장 랜드마크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체 브랜

드 및 캐릭터를 스카이어닝 디자인에 활용할 예정이다. 구는 스카이어닝 설치로 눈, 비 등 기상영향을 덜 받는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함으로써 30~40대 젊은 고객층의 새로운 유입과 시장 매출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말까지 남성사계시장에 총 23편 규모의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시장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장애인 및 여성운전자 주차공간과 경차·SUV 등 다양한 차종에 적합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관제 및 CCTV 감시 설비 배수시설 등 안전시설을 갖춘 무인 시간제 공영주차장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스카이어닝 설치로 남성사계시장의 쇼핑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오산시립미술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AR조각 정원/디지털처용무-지용호'展 개최

오산시립미술관이 지난 10월 13일부터 미술관 야외정원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AR조각 정원/디지털처용무-지용호'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술관 장기간 폐관에 따른 조치로 미술관 개방과 상관없이 야외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2000년대 이후 페타이어를 이용해 각종 동물형상을 조각 작품으로 구현하고 있는 작가 지용호를 초대해 전염병을 물리치고자하는 의도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처용 설화'를 모티브로 한 용형상의 대형 조각 작품을 소개한다. 또 AR기술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디지털화된 처용이 미술관 야외에서 '처용무'를 추고 있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미술관 정원 및 건물 외벽에 역시, 휴대폰을 이용해 작가

가 현재까지 발표한 동물 형상의 작품을 디지털 기술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작품의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처용무 II'이며 역시 '벽사'의 의미를 지니는 처용의 얼굴을 모티브로 한 조각 작품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처용무 I'은 현재 미술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술'전에 소개되고 있다. 지용호 작가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특별히 제작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처용무 II'를 오산시립미술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그는 "코로나 시대에 심신이 지친 오산시 시민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하고 향후 미술계가 코로나19와 대항하기 위해 AR기술과 같은 현실적인 돌파구를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강화군, 전원주택 및 단지형 농막 집중 단속



허용면적초과, 타용도이용 등 불법행위 단속, 원상복구 등 행정·사법조치 추진

강화군은 농지를 사실상 전원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단지형 농막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주말농장 선호 등 생활 패턴 변화로 농막을 사용하는 수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관내 농막 신고건수는 2017년도 600여 건에서 18년도, 19년도 각 900여 건을 넘었다. 올해는 이미 신고 건수가 900여 건을 넘었다. 그러나 최근 농막을 불법 증개축하거나 취지와 맞지 않게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농막형 전원주택단지는 농막

의 목적 외 사용, 농지의 무단형질 변경뿐만 아니라 오페수 무단방류, 쓰레기 불법소각, 늦은 시각 음주·소음으로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 그동안 군은 농지의 불법행위 공동단속 중 농막의 위험사항을 적발해 50여 개소는 즉시 복구하게 했으며 200여 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농한기를 맞아 농막형 전원주택 단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위험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태풍, 화재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므로 반드시 이용 취지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며 "농지에 농막, 성토 등의 행위 시 반드시 군청 농지관리TF팀이나 읍·면사무소에 사전협의의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중남기자

서대문구, 저층 주거지 내 재활용 분리배출 생활화 추진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 중 마을관리사업 일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모색

서대문구가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 중 마을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천연동 독립문로12길 일대에서 재활용 분리배출 캠페인 '#살림'을 진행한다. 저층 주거지인 독립문로12길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골목환경 개선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주민들이 정해진 장소인 빈집 터로 세척된 투명페트병, 우유팩, 캔을 총 10개 이상 모아 와 분리배출하면 휴지와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방식이다. 독립문로12길 주민에게는 화분도 증정한다. 이 캠페인은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해 천연충현마을협동조합, 천연동 주민자치회, 천연충현도시재생지원센터가 기획, 주관한다. 이달 10일 오

후 열린 첫 행사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에서부터 홀몸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 4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달 31일에 2차 캠페인이 열린다. 이어 11월에도 격주로 3회와 4회 캠페인이 진행된다. 내년에도 서대문구 협치형 의제인 '깨끗한 골목'을 만드는 주민참여형 마을관리 사업으로 '#살림' 캠페인이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구는 이와 함께 이 지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방안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근 사례지 5곳을 답사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마을관리사업은 천연충현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이자 주민모임, 중간지원조직, 행정, 전문가가 함께 하는 대표적 협치 사례"며 "#살림 캠페인을 통해 골목환경 개선과 자원순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상순기자



FAIR TRADE
공정무역

광명시

공정무역도시 공식 인증

- 공정무역 도시 선언 후 11개월간 공정한 소비 앞장**
- 공정무역제품 판매점 목표치 3배 넘는 36개 확보**
-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및 공정무역 인식 확산**
- 공정무역가게 협의체 구성, 공정무역오픈박스 프로그램 운영 등**

광명시는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광명시,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재생 뉴딜 우수 지자체' 심포지엄 추천!

안산시, '전국최초-아시아 두 번째' 상호문화도시 지정 축하...세계인의 날 기념식 성황리 개최

윤화섭 시장 "내·외국인 화합하는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열어가겠다"

안산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제13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화랑유원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참석 인원을 300명으로 제한한 가운데 좌석 간 거리를 2m로 유지하는 한편 발열체크 및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시는 매년 5월 20일인 세계인의 날을 맞아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하반기로 연기했다. 세계인의 날 행사는 전국 최고의 다문화도시 안산에서 살아가는 100여개 국가 출신의 세계인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특히 안산시가 지난 2월 전국 최초이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유턴평의회가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안산시는 전 세계

기스스탄 대사 등 7개국 17명의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고 안산시와의 우호협력을 다짐했다. 인도네시아 전통공연과 한국의 대북공연으로 문을 연 기념식에서는 상호문화도시 주제영상 관람에 이어 지구촌합창단이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순으로 선정한 20개국의 국기입장 퍼포먼스와 윤화섭 시장이 내·외국인 인사들과 전국최초 상호문화도시 안산 선언식도 진행됐다. 윤화섭 시장은 기념식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의 개최를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이해와 포용으로 내·외국인과 화합해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열어가길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안산시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제12회 다문화시민대상을 5명을 시상했다. 부문별로 결혼이민자 부문

주요 26개 상호문화도시 가운데 '상호문화도시 지수' 평가에서 최상위권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행사에는 동티모르·라트비아·감비아·키르



반 특별 퍼포먼스로 진행된 세계의 국의 전통의상을 선보였으며 윤화섭 시장과 동티모르 대사가 함께 참여해 피날레를 장식해 행사를 빛냈다. 최정부기자

평택시에 아름다운 섬이 생겼네요

국도 최서남단 가거도 '평택의 섬' 표지석 설치

평택시는 전남 신안군과 자매결연 1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신안군 가거도에서 표지석 제작행사를 가졌다. 이날 제작식은 정장선 평택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홍선의 시장, 김혁성 군의장 등 평택시와 신안군 주요인사와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지석 제작식, 평택시 농·특산물 홍보, 물품 지원 등으로 진행됐다. 평택시와 신안군은 지난해 11월 5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가거도'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평택의 섬'으로 선�포했고 이번 표지석 제작 행사로 두 지자체가 '형제'로서 우의

를 확고히 하는 출발점이 됐다. 표지석은 평택시를 대표하는 "슈퍼오닝 쌀"의 모양을 본뜬 모양으로 가거도를 방문하는 평택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평택을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작식 이후 가거도 주민 및 신안군 관계자에게 우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도시 브랜드 홍보를 강화했으며 가거 초·중학생과 어르신들을 위한 물품 전달식도 가졌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 방문단을 환영해주는 신안군 및 가거도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호 방문 교류를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성화해 지역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당현천 밝히는 '힐링의 빛'으로의 초대, 2020 노원달빛산책 개막

당현3교에서 수학문화관까지 2km 구간 전시,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점등

서울 노원구를 대표하는 문화축제 '2020년 노원달빛산책'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4일간 당현천 일대에서 펼쳐진다. 이번 달빛산책은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에게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생활 속 문화 향유를 위해 마련했다. 당현3교에서 수학문화관까지 2km 구간에서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달빛'을 주제로 200여점의 예술 등과 빛 조각 작품이 당현천을 밝힌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전시기간을 두 배 이상 늘려 운영하고 행사구간과 작품 수도 대폭 확대한다. 이는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해 일정한 거리두기 관람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번 축제의 메인 테마는 '달빛'이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희망과 평화의 상징이 되어준 '보름달'은 코로나19로 고단해진 삶과 문화적 갈증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이번 축

제의 의도와 잘 어우러진다. 축제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빛에 머물다', '보름달', '소원', '달항아리' 등의 작품은 보름달을 직접적인 소재로 활용해 축제의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 특히 '지구를 잡은 소녀'는 올해 초 화제가 됐던 마스크 의병단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작품이다. 전례 없는 위기 앞에서 연대와 협력이 빛을 발했던 것처럼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 사운드와 스모그 등을 활용해 우주 왕복선의 생생한 발사장면을 묘사한 '콜롬비아 우주선'도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돌고래, 기린, 코끼리, 캥거루 모형의 '동물농장'과 중장년층과 어르신의 향수를 자극할 '취발놀이', '초가집', '가야금 키는 남자, 부채를 든 여자' 등의 작품도 행사장 곳곳에 배치되어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별작가 7인의 작품은 달빛이 갖는 의미를 개성 있게 표현해 이번 축제의 예



술적 깊이를 더한다. 살아 흔들리는 듯한 빛의 물결을 담은 서성봉 작가의 '달춤', 당현천 바람에 맞추어 자유롭게 움직이는 소재의 질감을 살린 보라리 작가의 '달 그림자', 작은 직육면체 아크릴로 동근달을 효과

적으로 형상화한 박민섭 작가의 '만월'은 다양한 방식으로 달빛을 바라보는 독창적인 시각적 체험을 제공한다. 검푸른 달빛에 투영되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표현한 인송자 작가의 '푸른 달의 노래', 12개의 달빛을 눈물 조각으로 형상화한 박근재 작가의 '월강 소나타'는 각박한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안고 위안을 주는 감동을 선사한다. 또한, 부드러운 구름이 초승달을 감싸고 있는 김관용 작가의 '결월', 달빛과 함께 어둠을 밝히는 촛불의 이미지를 결합한 송필 작가의 '길'은 자연의 소재인 달을 통해 인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으로 축제의 테마를 선명히 제시하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아름다운 등 작품 이외에도 산책로를 따라 펼쳐지는 화려한 일체 영상과 경관조명도 주목할 만하다. 먼저 무한한 우주의 신비로움을 LED 미디어파사드 기술로 구현해 낸 '우주의 탄생'과 RGB 레이저와 음향효과로 반딧불이를 표현한 '반딧불이 밤마실', 하늘에서 당현천으로 별뿔뿔이 떨어지는 모습을 아이러리 연출한 '우성우'는 축제 관람에 역동성을 더해준다. 또, 색바랜 벽화를 빛으로 재탄생시킨 '달빛 미술관', 물 위에 뜬 달과 별을 빛으로 형상화한 '당현천 주역의 달'도 전시 작품과 어우러져 한층 몰입감 있는 관람을 유도한다. 이외에도 노원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3D 홀로그램으로 생동감 있게 구현해 낸 '노원 타임 슬립'까지 놓치지 아까운 관람 포인트가 곳곳에 배

치되어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관람을 돕기 위한 구민 해설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월요일~목요일은 저녁 7시, 금요일~일요일은 저녁 7시와 8시 2차례 진행한다. 회당 인원은 10명으로 한정해 사전예약을 받고 있으며 신청접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원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구는 축제기간 안전한 관람을 위해 전기 분전반 점검, 전력 과부하 및 작품 점등상태 확인 등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합동상황실과 종합안내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행사장에는 응급의료단도 상주해 관람객들의 안전을 살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람객의 밀집 우려가 있는 각종 부대행사와 체험부스는 운영하지 않으며 행사 구간마다 질서요원을 배치해 마스크 착용 여부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검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달이 가진 소원,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이번 달빛산책 축제를 준비했다"며 "늦가을 정취가 담긴 당현천을 가족, 연인과 함께 즐기며 힐링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작은실천~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만40세이상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만19세~만64세 의료급여 세대주, 만 41세~만64세 의료급여세대원
※ 검진주기 : 2년에 1회(직장가입자 비사무직 1년에 1회)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만40세와 만66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형 검사(B형간염검사, 골밀도 검사, 정신건강검사 등)와 생활습관 평가 등 의사상담을 실시

▶ 암검진

- 대상자 : 출생연도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 위암 (만 40세이상, 2년주기)
· 자궁경부암 (만 20세이상 여성, 2년주기)
· 유방암 (만 40세이상 여성, 2년주기)
· 간암 (만 40세이상 고위험군, 6개월주기)
· 대장암 (만 50세이상, 1년주기)

▶ 영유아검진

생후 4개월부터~7개월까지의 영유아

국가 건강검진 활용 안내

「민원24」(www.minwon.go.kr)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관련 생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 면제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공단에 검진결과를 접수완료한 건에 한함)
- 신청방법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정보이용 동의서 작성하거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시 가능
- 대상면허 : 1종 보통면허, 2종 운전면허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안내

검진대상 : 9세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19세~24세는 다른 국가검진과 중복 불가
검사항목 : (기본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B형간염검사, C형간염검사, 구강검사
(추가검사) 매독혈청반응검사, HIV항체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학교밖 청소년 검진관련 문의 (유선전화 : 1388, 핸드폰 : 지역번호+1388)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콜센터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고객센터 1577-1000

안동 관광지 알고 보니 영화촬영 명소2편

가을 나들이는 언택트 관광지에서 안전하게 즐기자

안동의 관광지는 인공적인 요소보다 역사·문화·자연적 요소가 어우러져 수백 년이 지나서도 원형의 가치를 마음껏 뽐내며 지금도 각기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일까 안동의 관광지들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더욱 힘을 발휘하며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안동시에서는 각종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촬영장이었던 안동의 보석 같은 명소를 소개한다. 가족 관광객들이 청정 자연을 감상하며 안전하게 힐링 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안동하회마을의 서북쪽 강 건너 해발 64m 절벽으로 정상에서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부용대라는 이름은 중국 고사에서 따온 것으로 부용은 연꽃을 뜻한다. 처음에는 북에라 했는데 이는 하회의 '북쪽에 있는 언덕'이라는 뜻이다. 아래로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곳에 옥연정사와 겸암정사, 화천서원인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김명인, 한지민, 오달수가 주연해 관광객 478만명이 관람한 영화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이 촬영됐다. 깎아 지르듯 듯한 부용대 절벽에서 김민과 서필이 쫓기는 장면이었다.

하회마을 전체가 항공촬영되어 또렷이 잡혔다. 이 외에도 신하군, 장혁 주연의 영화 '순수의 시대', '궁합', '왕을 참하라', KBS2 드라마 '황진이', KBS2 드라마 '추노', MBC 드라마 '투윌스', KBS2 드라마 '조선총잡이' 등이 촬영됐다. 봉정사는 신라 문무왕 12년에 의상대사의 제자인 능인스님께서 창건하신 사찰이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을 가진 이곳은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봉정사에서는 주로 부속 암자인 영산암에서 영화가 촬영됐다. 천만 배우 송강호와 박해일이 주연한 영화 '나랏말싸미'에서 신미스님으로 분한 박해일이 영산암 마루에서 한글을 떠올리는 장면이 촬영됐다. 이외에도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동승', MBC 드라마 '직지' 등이 촬영됐다. 병산서원은 낙동강의 은빛 백사장과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고 병풍을 둘러친 듯한 '병산'이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하게 할 만큼 빼어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만대루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관은 병산의 자연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유생들이 교육을 받던



강당인 입교당에서는 자연과 건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영화 '미인도'에서는 김홍도의 문하생으로 들어간 신윤복이 만대루에서 김홍도와 함께 그림 공부를 하는 장면이, 임권택 감독의 영화 '취화선'에서는 만대루에서 열린 고을 현감의 생일잔치에서 오원 장

승업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또, 공전의 히트를 쳤던 장혁, 오지호 주연의 KBS2 드라마 '추노'와 류승룡, 수지, 송세벽 주연의 '도리화가', 영화 '이타미 준의 바다', tvN 예능 '알쓸신잡2', MBC 예능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등의 촬영지였다.

김영호기자

“쓰레기는 버리고 희망을 쌓아요”

사례관리 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실시

군위를 맞춤형 복지담당에서는 권역형 전담팀으로 군위를, 소보면, 효령면의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16일 소보면 사례관리대상 가구에 주거환경 정리를 했다.

대상자가 거주하는 집의 방과 마당은 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폐지와 각종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고 쥐와 벌레들이 서식해 대상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에 군위읍에서는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 방역 실시 및 집안의 생활폐기물을 정

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했다. 군위지역자활센터에서 방역과 폐기물 정리 및 청소를 했고 소보면사무소와 군위군 환경관리센터는 약 4.5톤의 폐기물 수거 및 무료처리를 도왔다. 또한, 현재 대상자가 최근 건강 악화임을 반영해 경북공동모금회, 안동의료원과 연계해 긴급의료비를 지원했다. 윤준섭 군위읍장은 “여러 기관이 협력해 대상자의 집을 정리할 수 있게 도움을 주어 보람을 느끼며 가족 같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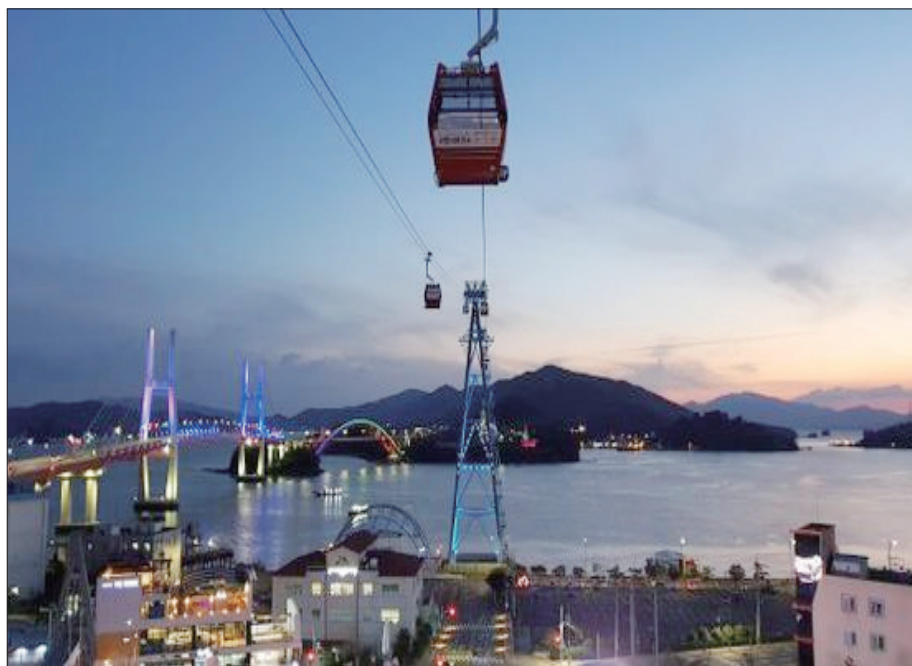
김영호기자



사천바다케이블카, 안전한 여행을 위한 준비 철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코로나19 방역체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사천바다케이블카 방문객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안전한 케이블카 여행을 위한 비상 방역 관리에 돌입했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지난 12일에 케이블카 방문객이 평소보다 평균 2배 이상이 증가했으며 단체 관광버스도 다녀갔다. 그에 따라 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 방역체계에 돌입했다. 단체 버스가 도착하면 손님이 하차하기 전 버스 내에서 열 체크를 해 손님 중에 37.5도 이상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버스를 그대로 돌려보낼 방침이다. 또한, 방문객 모두 UV-C 자외선·적외선으로 각종 바이러스를 100% 살균하는 무균소독기를 필수로 거쳐야만 케이블카 탑승이 가능하고 탑승장에는 열감지 화상카메라로 방문객 상태를 체크한 후 열이 없는 손님들만 탑승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방문객은 출입이 제한되며 거리두기의 하나로 탑승 대기선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케이블카 직원이 수시로 안내하고 있다. 한편 사천바다케이블카는 매주 금·토요일에 야간운



행을 시작하면서 전체 운영시간이 변경됐다. 평일인 월~목요일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요일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하고 매표는 운행종료 1시간 전에 마감된다. 이와 함께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야간운행 기념 케이블카 탑승순서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후 6시 이후 100, 200, 300번째 탑승하는 고객 총 3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공

기정정기를 증정한다. 박태정 이사는 “우리 케이블카는 매회 건물전체 소독을 하고 손이 닿는 부분은 수시로 표면소독을 하는 등 빈틈없이 방역관리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많은 방문 바란다”며 “여러분도 마스크 필수 착용, 거리두기 대기선 지키기, 오염된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 개인 생활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궁영기기자

‘지구가 아프대요’성주의 환경, 우리가 지켜요

성주군, 어린이 대상으로 환경인형극 등 환경보전체험 교육 실시

성주군은 지난 8일부터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인형극과 자연물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 실천 체험교육을 실시해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환경인형극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생활실천 알아보기와 미세먼지 대응요령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환경문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인형극 형식으로 풀어내었으며 자연물 재활용을 통한 체험 교육은 주위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자연물인 나무를 이용해 나무 호루라기인 포르라기를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이다. 이번 교육은 친숙한 인형 캐릭터로 호응을 유도하며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어린이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이번 환경보전체험 교육은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3일까지 5개 어린이집을 찾



아 진행하고 있으며 총 200명의 어린이가 참여한다. 군 관계자는 “성주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녹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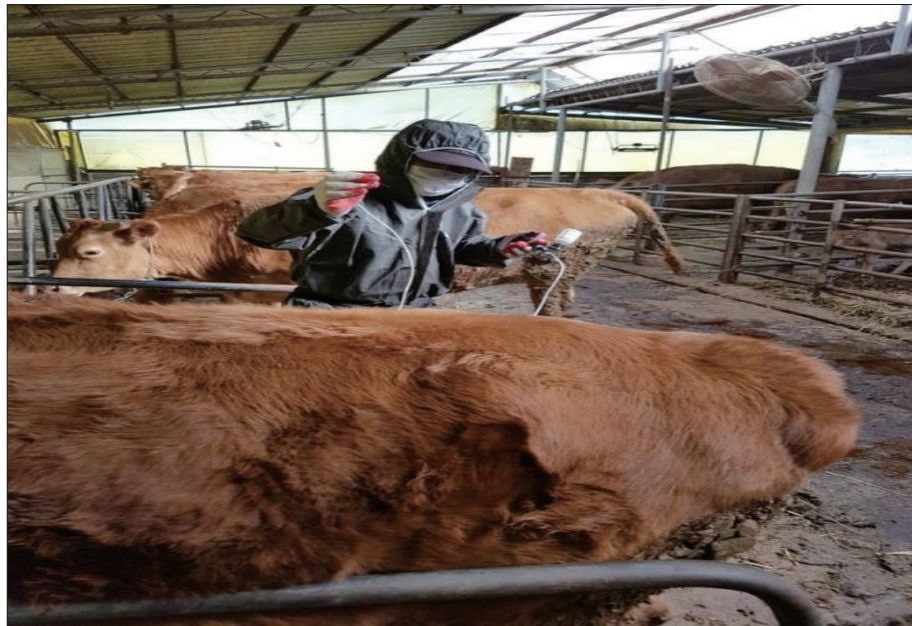
생활 실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후변화 교육프로그램과 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몽호기자

영천시, 2020년도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 일제접종 실시

소규모 농가 무료 접종지원, 전업규모 농가는 백신 구매해 자기접종

영천시는 지난 16일부터 한 달간 소 4만4천두, 염소 4천6백두에 대한 구제역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접종은 지난 4월 상반기 일제접종 이후 6개월만이며 개별 접종시기 차이에 따른 누락축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4월과 10월 연 2회로 일제접종을 정례화해 추진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2주 이내에 도축 출하 예정인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신 가축은 유사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3~7개월의 접종간격을 준수할 경우 접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자가접종이 어려운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와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를 통해 무상 접종 지원에 나서며 전업규모의 소 사육농가는 백신 구입비의 50%를 지원해 자가접종을 실시하고 300두 이상 염소 사육농가는 무상 백신 공급,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일제접종이 완료되고 4주 후에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1개월 단위로 반복 검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축산 관련 모든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등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무엇

보다 중요하고 한 마리라도 접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일제접종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축산인들 스스로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인 출입 통제 등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농장 차단방역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반식기자

귀농인·지역주민·소비자 소통 썩쓰리

구성면귀농협의회는 오는 24~25일 김천시 구성면사무소 강건너편 일원에서 ‘구성 “양파”를 품다’ 주제로 난장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산물 장터 개설 및 아이디어 공유로 단체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판매, 나아가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면귀농협의회 자체적으로 행사를 마련한다. 또한 회원들의 솜씨로 만든 유물전시, 분재전시, 사진전 등 볼거리장터와 천연염색, 탈곡체험, 율놀이 등 체험거리장터 및 구성양파전, 도토리묵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장터가 운영된다. 이응만 구성면귀농협의회장은 “난장은 귀농인과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장으로서 농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또 다른 농촌문화를 만들고 귀농인·지역주민·소비자 간 소통 및 유대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며 “금년 첫 시작으로 호응도가 높으면 매년 장터를 열어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영기 농촌지도과장은 “우리 지역에 새로운 꿈을 안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각자 가진 재능과 아이디어를 모아 참신한 장터를 열어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고 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몽호기자

난리난장터 행사에 “놀러오세요”~

난리난장터

구성 “양파”를 품다

볼거리 장터	느낄거리 장터	먹거리 장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옛물건 전시(상시) 사물놀이(토 오전11시) 한국무용(토 오후2시) 떡메치기(상시) 분재전시(상시) 사진전(상시)외 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연염색 체험 벽면 혼적남기기 명석 율놀이대회 탈곡기 체험 풍동 띄우기, 배 띄우기 외 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 양파전 막걸리, 어묵 잔치국수, 장터국밥 도토리묵, 빈대떡 약식, 수정과, 식혜 외 다수

- ❖ 일시: 2020년 10월 24일(토) 10:00~ 25일(일)
- ❖ 장소: 구성면사무소 강건너편(미평3길 30-11)
- ❖ 주최: 구성면귀농협의회
- ❖ 후원: 김천시농업기술센터, 구성면사무소(문의 421-2222)

창원시, 17억원 규모 2차 긴급재난지원대책 더한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00만원씩 총 8억원, 문화·예술인 100만원씩 총 6억원, 신혼부부 가정에 50만원씩 총 2억 5천만원 지원



창원시는 지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시 자체 예산 1,000억원을 포함해 총 3,8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직접 지원대책을 마련했고 소비 촉진 등 경기보강을 위한 대책도 연말까지 추진중이다. 그러나,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또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9월 정부는 4차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12.4조원 규모의 '긴급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위기가구와 학무모 등 피해계층 지원과 방역 및 경기보강을 위한 지원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곳은 없는지, 기존 지원

대책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창원형 2차 긴급재난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대책에서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및 신혼부부 가정을 위해 총 17억원 규모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먼저, 코로나 확산에 따라 여행 및 통근·통학 등 운행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00여명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총 8억원을 지원한다. 9월 30일 이전 입사등록 및 전입 후 창원시 거주자로 정부 중복 지원자는 제외된다. 둘째, 상당 기간 공연, 축제 등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소득

이 감소한 문화·예술인 600여명에 대해서도 1인당 1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한다.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9월 30일 이전 전입 후 창원시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이 가입자인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문화·예술인에게 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정부·기관 등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분은 제외한다. 셋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관내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렸거나, 예약되었던 결혼식을 취소한 500여 신혼부부 가정에 대해서도 50만원씩, 총 2억 5천만원을 지원한다. 신랑·신부 또는 부모님을 비롯한 양가 혼주 중 1명 이상이 8월 23일 이전 전입 후 창원시 거주자여야 한다. 시는 11월 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신속한 심사 과정을 통해 조기에 대상자를 확정, 11월 초에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대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빈틈없는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경제의 불씨도 더욱 살려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됐지만, 아직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마스크 착용과 생활속 방역수칙을 더욱더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정몽호기자

남해군, 빈집 활용 새 모델 찾기 선제적 대응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각광받는 '다자요' 남성준 대표와 싯도 깊은 논의



남해군이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인 '다자요'와 함께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 찾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6일 남해군청 군수실에서 장충남 남해군수와 남성준 다자요 대표 등을 비롯한 군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다자요'가 추진하는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업소로 활용하면서 10년 후에는 해당 주택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2018년 제주도에서 시작돼 새로운 공유경제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다자요'는 제주도에서 사라져가는 전통 돌담집을

개조해 숙박 업소로 활용했는데, 여행지 고유의 삶의 흔적을 느끼며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최근 여

행 트렌드와 맞아떨어지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집주인이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탓에 '논어촌 정비법' 위반에 걸리게 된다. 앞서 '타다' 등의 경우처럼 새로운 공유경제 시스템이 현실법과 상충하면서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신 스타트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다행히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자요' 시스템을 3년 간 5개 지자체에서 50채를 시범 모델로 운영할 수 있는 '한걸음 모델' 방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된 '다자요'는 공유숙박 플랫폼이 적합한 지자체를 탐색하고 있던 중 그 첫 방문지로 남

해군을 선택된 것이다. 남해군과 '다자요'는 이미 3년 전부터 논어촌 빈집재생 정책 수립과 관련해 인연을 맺어왔기에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 관련 논의 역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무엇보다 다자요의 공유숙박 플랫폼이 현실법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빈집 재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인식하고 있던 남해군은 규제 해소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남해군은 '다자요'와 협업을 통해 단순한 빈집 재생을 통한 숙박업 활성화 뿐 아니라, 관광분야 창업 기업 유치와 청년 정착 지원 등 군의 청년·관광 정책과 광범위한 융합이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인식은 '다자요' 역시 마찬가지로 남성준 대표는 "숙박업소의 이윤 일부는 마을 기금으로 활용되며 부가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더 나아가 마을 주시회사 설립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해군의 청년·귀농 정책과 다자요의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장충남 군수는 "남해의 고유한 옛 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새로운 주택으로 탄생하는 모델이 마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며 "새로운 펜션 등을 짓게 될 경우 발생하는 산림 훼손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송인용기자

어린 물고기의 해양자원적 가치와 중요성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2020년 하반기 기획전 '유치난물고기'



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은 2021년 2월 28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우리 바다 어린 물고기 기획전 '유치난물고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자연사박물관은 난·자치어 표본 200여 점, 골격염색 및 성어 표본 50여 점 등 실물 표본 각종 조사 및 연구 도구 각종 디지털 자료 등을 통해 우리 바다에 분포하는 어린 물고기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전시 구성은 [1부] 어린 물고기의 탄생 [2부] 어린 물고기의 성장 [3부] 어린 물고기의 가치와 보호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2부]에서 관람객들은 매우 작은 물고기의 알과 어린 물고기들의 형태와 특징을 현미경으로 뚜렷이 살펴볼 수 있으며 어린 물고기를 조사·연구하는 다양한 기관들의 최신 자료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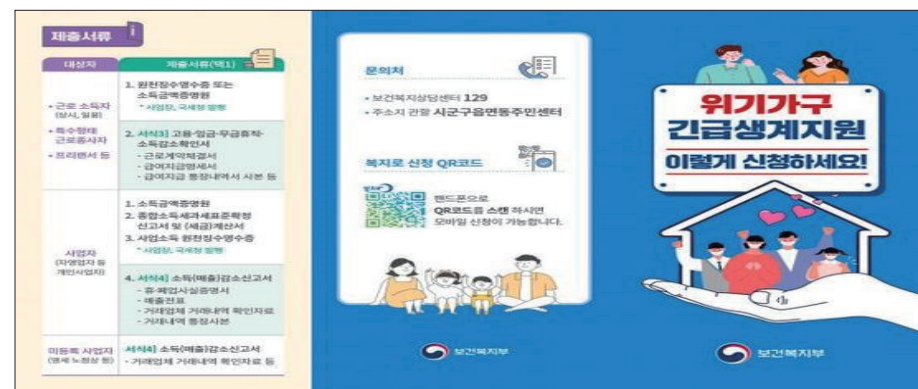
정승윤 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 관장은 "이번 전시는 부산지역 내 유일한 자연사박물관으로서 최근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어린 물고기의 가치를 상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며 "또한, 관람객들에게 평소

쉽게 보기 힘든 어린 물고기의 실물 표본을 포함해, 다양한 불거리와 각종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궁영기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하동군, 소득 25% 이상 감소 저소득가구 대상 이달 말까지 인터넷·음면 접수



하동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달 전담팀을 구성해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 현장점검 실적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 혹은 휴·폐업을 하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원 이하 저소득 가구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 긴급복지 및 다른 사업 코로나 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10월 12일~30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포 누리집 및 모바일 복지포 누리집을 통해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10월 19일~30일 오후 6시까지는 현장 방문신청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

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 신청할 수 있다. 주말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 윤상기 군수는 "이번 긴급 생계 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어려운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몽호기자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성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STICKER

네임스티커 & 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디자인다해
TEL: 031.984.8245

해남군, 2020 대한민국 SNS대상 '대상' 수상

전남유일 대상, 자체제작 유튜브 영상 홍보 등 소통 활발



해남군은 제10회 2020 대한민국 SNS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SNS 대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SNS 활용 현황을 평가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해남군은 지난

2019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는 전남에서는 광역과 시·군을 통틀어 유일하게 대상을 거머쥘 2년 연속 수상 성과를 거뒀다. 해남군은 민선 7기 군정역점과제로 소셜미디어 마케팅 강화를 추진, 페이스북과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군정시책과 해남의 역사와 문화 관광, 특산물 등을 알려나가고 있다. 또한 해남의 매

력을 알리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공무원이 직접 제작, 출연하는 홍보 콘텐츠를 발굴해 영상으로 제작,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남군 유튜브는 1년여만에 12만 5,000여회 조회수를 달성했으며 특히 페이스북 팔로워는 3만 1,000명을 넘어서며 전남도내 군단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정에 대해 활발히 주민과 소통하는 등 군단위에서 보기 드물게 SNS를 통한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손꼽히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SNS를 통한 소통 강화와 유익한 군정 소식 전달은 양방향 소통과 행정의 신뢰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전국에 해남을 알리고 주민들과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SNS마케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 반값이라는 할인 혜택을 받고 문화와 역사,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거문도, 초도, 손죽도를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단 나로도항을 이용할 경우 여객선비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여수여객선터미널을 이용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원거리 도서지역의 해상교통비 부담 경감으로 관광비수기 섬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전년도 동기대비 타지역민 이용객이 32%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전인 11월, 12월만 놓고 보자면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지원액 50%는 여수시가 40%, 여객선사가 10%를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약재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결과 관광객 유입효과가 확인됐다"며 "침체된 섬 지역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철저한 준수로 손님맞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관광, 공식SNS 채널 '광양투어' 소통창구 활짝

인스타그램에서 '광양투어' 팔로우하면 진행 중인 이벤트 참여 가능

광양시가 광양관광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활발한 소통과 홍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9월부터 광양관광 공식 SNS 채널, 인스타그램 '광양투어'를 정식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양투어'에는 시 관광지의 사계, 인생 카페, 윈데이 클래스 등 구석구석 발품을 팔아야만 만날 수 있는 따끈따끈한 여행정보와 이벤트가 수두룩하다. 또한 관광지 입장료 할인, 문화행사, 코로나19 방역수칙 등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각종 할인 정보와 유익한 생활문화정보도 덩어로 얻을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창에 '광양투어'를 입력해 팔로우할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특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행운을 누릴 수 있다. 현재 '광양투어 해시태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3일부터는 광양 가을의 감성이 물씬 풍기는 '가을 쿠키 이벤트'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이색적인 특별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열어 누리꾼들과 광양관광의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을 이어나가는 한편 온라인 관광플랫폼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김미영 관광마케팅팀장은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여행방식인 인택트 관광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감각적이고 감성 넘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며 "현지인들만 아는 숨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적극 제공해 누리꾼들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광양관광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양영욱/기자

조기석/기자

여수시, '남해안의 비경 거문도'...타 지역민 '여객선비 50% 지원'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여수-거문도로 구간...섬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거문도를 반값 운임비로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여수시는 타 지역민을 대상으로 올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여수-거문도로 여객선비를 50%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외지인은 누구나 여객선비의 반값이라는 할인 혜택을 받고 문화와 역사,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

한 거문도, 초도, 손죽도를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단 나로도항을 이용할 경우 여객선비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여수여객선터미널을 이용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원거리 도서지역의 해상교통비 부담 경감으로 관광비수기 섬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전년도 동기대비 타지역민 이용객이 32%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전인 11월, 12월만 놓고 보자면 46%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지원액 50%는 여수시가 40%, 여객선사가 10%를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약재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결과 관광객 유입효과가 확인됐다"며 "침체된 섬 지역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철저한 준수로 손님맞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목포시, 유튜브 통해 낭만항구 목포여행 매력 알린다.

유명 여행 유튜브와 연계해 목포의 숨겨진 관광지 소개

목포시가 젊은층을 겨냥한 관광 홍보를 위해 유튜브를 활용한 관광 마케팅을 추진한다. 시는 유명 여행 유튜브 '초마드'와 연계해 목포여행 영상을 유튜브 및 시 SNS 채널 등에 게시하며 근대역사문화공간, 서산동 시화골목, 스카이워크포토존,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 항구를 품은 레트로 감성도시 목포만의 관광지 매력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 홍보 사업은 목포시가 무안, 신안과 함께한 관광 공동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19일 게시된 목포여행 소개 영상 뿐만 아니라 서남권 공동 영상도 10월중 추가 게시될 예정이다. 시는 목포를 포함한 서남권 여행지를 함께 홍보하며 더욱 풍성한 해진 관광자원으로 서남권 관광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이 코로나19로 당장 목포를 방문하지는 못하더라도, 목포 관광 콘텐츠를 꾸준히 노출해 목포시가 누구나 꼭 가고 싶은 여행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일/기자



장흥군, 청소년 창작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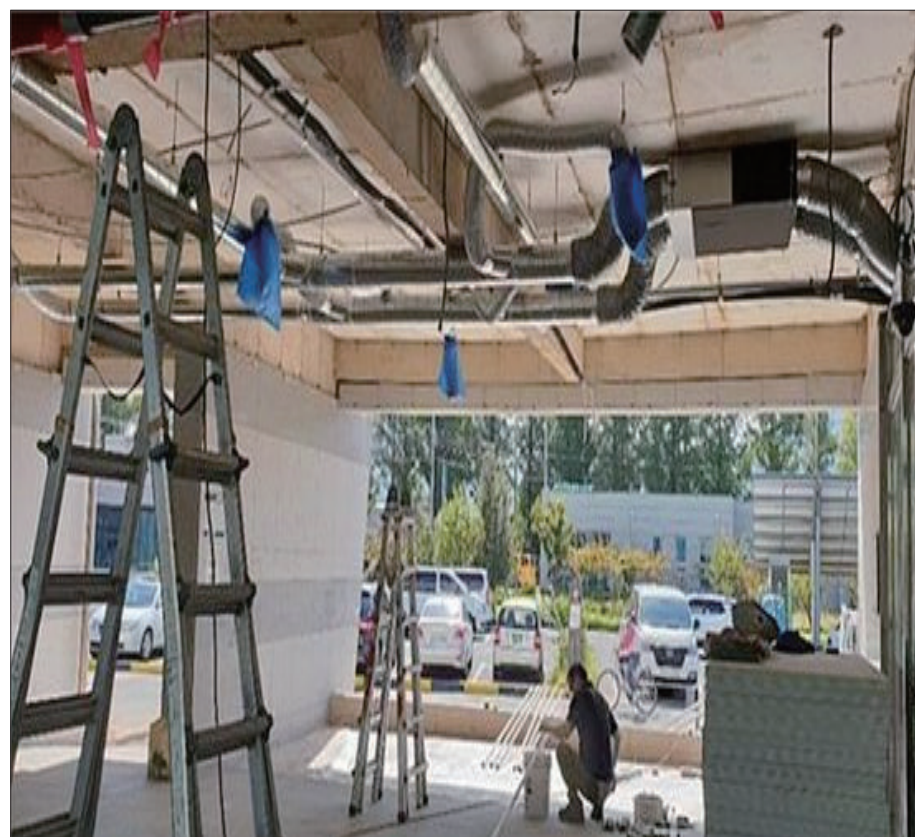
2024년까지 총 사업비 6억 9000만원 투입

장흥군은 지역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창작공간으로 활용될 '정남진 유스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5월 중순 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2020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과 운영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는 총 6억 9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020년에는 국비 1억 5000만원과 도비 2000만원, 군비 4000만원을 들여 시설을 구축하고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매년 1억 2000만원의 운영비가 국·도·군비로 지원된다. 한들청소년센터가 주관기관으로 전라남도, SW융합교육협동조합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남진 유스 메이커 스페이스'는 지난 7월에 직원 채용을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장흥군청소년수련관에 1층 상상

카페와 3층 착한목공실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월 말 개소식을 시작으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토이스토리, 코딩, 3D프린터, 3D모델링, 보드게임, 나도 목수 등을 운영한 방침이다. 청년들을 위한 수공예 중심의 메이커 양성 프로그램으로는 드론창조교실, 청춘융합학교, 건축사관학교, 목공예 등이 있다. 주부, 성인을 대상으로는 아두이노를 이용한 IOT, 가구리품 착한목공소, 바느질교실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지역 청소년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창작공간으로 활용될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하남2지구 상인들, '하2 해피페스타' 할인 행사

11/15일까지 가게 이용 손님에 복권형 쿠폰, 음식·주류 이용권 등 제공

광산구 하남2지구상가상인회가 다음달 15일까지 '하2, 해피페스타'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산구 블랙프라이데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침체된 하남2지구 골목상권 상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할인 이벤트. 상인들은 상가 이용 손님들에게 복권형 쿠폰을 나눠줘 결제 금액의 10~50%를 할인 해주고 음식·주류 이용권 등도 제공

한다.

행사 시작 첫 주말인 17일 광산구 '광산행복유랑단' 공연과 하남골을 립소리의 모듬북 난타 공연 등이 열렸다.

하남동 주민자치회는 부대행사로 음식을 쓰레기 감량 캠페인과 함께 주민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줬다.

박헌기 하남2지구상가상인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해준 주민들에게 감사드리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안전 속에서 골목상권의 부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덕윤/기자

2020년 광산구 골목상권 블랙프라이데이 공모사업

하남2지구 상가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0. 10. 15. ~ 11. 15.

참여업체 이용 후 쿠폰 수령, 당첨된 참여업체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으세요!

참여업체: 일반음식점, 공예작품, 금장어, 김가네우렁, 대원축산, 돼지고기들뽕농은 김치찌개 하남점, 몽실네식당, 어등전국밥, 전라도아구, 좋은국밥전골 경주하남점, 푸사장 하남점, 터트대강 하남미가촌, 하늘잔치, 하영계절표차 카페, 감성커피, 달궁카페, 드림담 커피, 아이트 카페, 호프: 기네스치킨호프, 남도전집, 심야광장, 예지호프 기타: 고기마트, 화미주머니를헤어 경주하남점, 팻홀리, 플레어워시 세차장, 대호상사, 광주어룡신협 하남점

코로나19 중식을 기원합니다.

주관: 하남2지구 상가 상인회 후원: 광산구

박현규 부안군 부군수 취임 100일 “지역발전 마중물 최선”

국가예산 확보 ‘술선’...지역 현안사업 해결 ‘앞장’

지난 7월 1일 취임한 박현규 부안군 부군수가 취임 100여일 동안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박현규 부군수는 전주 출신으로 전라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1992년 공직에 입문해 전북도 정책기획관실 정책개발담당, 기획관실 국가예산담당, 기획조정실 집행리추진담당, 혁신성장정책과장 등을 역임하고 부안군 부군수로 취임했다. 박현규 부군수는 취임 후 뛰어난 업무적 판단 아래 부안군과 전북도의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 지역발전의 발판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특히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을 중시하며 전북도 기획부서에만 10여년 이상 근무한 정통 행정통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력을 심분 발휘해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실제 박현규 부군수는 취임 후 국



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 10여 차례나 전북도 및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도사업 주요 사업장 현장 행정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워라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안자연마당과 부안지방정원, 신원천 생태하천 등도 직접 둘러보면서 발전방

안을 모색했다. 박현규 부군수는 “어느덧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는지도 몰랐다”며 “그만큼 부안에서의 근무가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에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부안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관광자원 등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매력 넘치는 곳”이라며 “그동안 쌓은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안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현태/기자

진안역사박물관 10월 문화가 있는 날 ‘새싹인삼 키우기’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새싹인삼을 키우며 진안인삼 이해하기 활동, 선착순 25가정 모집

진안군 진안역사박물관에서는 10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새싹인삼 키우기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지 않으며 비대면으로 전환해 각 가정에서 새싹인삼을 키우며 진안의 특산물인 인삼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진행한다.

체험은 직접 인삼을 키울 수 있는 재배키트와 인삼재배의 기원과 역사를 알 수 있는 활동지를 박물관에서 직접 수령해 각 가정에서 각자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자세한 교육·체험 진행 방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SNS를 운영해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프로그램 참가는 진



안군민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선착순으로 25가정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안내는 진안역사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참여자들이 직접 새싹인

삼을 키워보면서 진안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박물관이 재미있고 즐거운 문화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종철/기자

정우면 양지마을, 코로나19 이동 제한 해제 ‘일상생활 복귀’

19일 유진섭 시장, 이동 제한 해제 관련 기자회견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 이동 제한 조치에 들어갔던 정우면 정우면 양지마을 주민들이 격리 14일만인 19일 일상생활로 복귀했다.

주민들은 서로를 마주 보며 “고생했다”는 말로 그동안의 아픔을 위로했다. 시에 따르면, 이동 제한 이후 현재까지 양지마을 주민과 주민 접촉자 264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마치고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 관련해, 유진섭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양지마을 현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따른 이동 제한 행정명령 해제를 발표했다. 해제와 동시에 마을로 통하는 5곳의 길목에 설치됐던 진·출입 통제선은 철거됐고 경찰관과 보건당국 관계자들도 모두 철수했다. 시는 이동 제한 해제 후 주민들의 혈압과 혈당 등 기초건강 검진과 함께 우울척도 검사 등 건강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먼저 전북대병원과 군산의료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확진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이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방역 당국을 믿고 협조해 주신 양지마을 주민들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양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마음과 정신을 보내준 시민들과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들을 돌봐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 대한 인사도 빼놓지 않았다. 시는 이동 제한 조치 후 양지마을 주민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마스크와 소독제를 비롯해 반찬류와 생필품까지 꼼꼼하게 챙겼고 지역농협과 함께 농작물 수확을 도왔다. 또, 현장 윈스톱 민원실 운영과 함께 고령자와 지병 주민의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공중보건 의와 응급 차량도 배치했다. 양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힘을 모아준 시민들의 노력도 돋보였다. 일반 시민들로 이뤄진 봉사단은 10일만에 걸쳐 총 1,000여 개의 도시락과 사골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다.

또, 성금과 물품 지원 등 37건의 요청이 이어지며 양지마을 주민들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됐다.

시는 이러한 시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위기 때 더욱 빛을 발하는 정우면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정우면민들의 배려와 나눔 그리고 사람 중심의 공동체 정신은 정읍발전의 탄탄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정읍시 공직자 모두는 마지막까지 11만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은/기자



2020 찾아가는 청년정책 소통학교 개최

순창군이 최근 문화공간 방랑사롱에서 ‘2020 찾아가는 청년정책 소통학교’를 추진했다.

청년정책 소통학교는 순창군과 전북청년허브센터(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남원시와 임실군이 함께 참여했으며 지역 청년들 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각 청년단체, 청년창업가, 지역청년, 청년정책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순창의 심어송라이터인 페이지의 라이브 공연을 시작으로 순창군 BOVO문화연구소 장재영 대표, 남원시 놀자랩의 서진희 대표,

임실군 심다은 농업경영인 등 각 지역의 청년활동 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청년주거·청년농업·청년지원 3개 분야를 토의 주제로 정해,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자유롭게 발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분임별토의 의견 수렴하고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동남권 청년정책 소통학교는 지난 8일 동북권 운영 이후 두 번째로 추진됐으며 서남권, 새만금권, 기타권역 행사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나,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청년들 간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지역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청년허브센터 박광진 센터장은 “권역별 청년정책 소통학교의 순차적 운영을 통해 지역청년과 소통하며 청년들의 청년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제안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마스크 착용,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장수군은 장수시장 및 터미널 등 장수읍 일원에서 안전보안관 및 안전재난과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민들을 대상으로 제288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격하 상황 및 유지 동참, 실생활의 각종 안전위험 요인들로부터 군민들의 생활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증을 홍보했다. 안전보안관과 안전재난과 직원들은 주민들의 코로나19로 인한 고충들을 청취하는 것은 물론 현재 장수군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대해 설



명했다. 이흥대 과장은 “이번 제288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 상인과 주민들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알게 됐다”며 “철저한 방역과 대응으로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대응 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장수군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곽승오/기자



사이소

검색창에 '사이소' 물을 검색하세요

맛 좋고 빛깔 좋은 영양소와
영양소로 만든 빛깔산 과기류
검색! 사이소에서 만나다

청정 영양



H.O.T 페스티벌

2020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영양 핫 페스티벌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당해는 온라인 축제로 진행합니다

판매기간 9월 14일 ~ 10월 14일
판매처 사이소 www.cys.co.kr
문의전화 054-683-7300

2020 온택트 강경젓갈축제, 조회수 130만회 기록 '대성공'

올해 처음 온택트로 막을 올린 온 산 강경젓갈축제가 코로나 시대의 모범적인 축제모델을 제시하며 명품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온 산 강경젓갈축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온택트' 방식을 도입했으며 전국 최초로 실시간 방송 형식의 온라인 축제를 시도했다.시는 랜선 개막식 외에 14개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 송출했으며 200여개의 동영상상을 게시해 전국의 랜선 관람객들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한 것은 물론 기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손쉽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축제 기간 내 '강경맛갈젓TV' 유튜브 채널 및 SNS 등 시청자수가 16만명 이며 누적조회수가 130만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인기를 얻은 콘텐츠는 '젓갈 특가 홍보판매전'으로 2만4천여명이 찾았다.

특히 한 달이라는 단기간 내 유튜브 구독자를 3천 7백여명을 확보하

면서 강경 젓갈의 전국적인 인기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 동안 축제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젓갈김치담그기'를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사전에 체험 키트를 판매한 결과 김치키트 1천5백 개, 양념젓갈 3백 개가 완판되며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시는 박병신 작가와 함께하는 '나만의 시간여행', 젓갈 영상 콘테스트, VJ시민영상, 오세득 셰프의 '강경젓갈 황금레시피' 등의 콘텐츠를 통해 명품 강경젓갈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온 산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 코로나19 이후 잠재적인 관람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축제 마지막 날에는 전국에서 '강경맛갈젓TV'를 찾아준 랜선 관람객들을 위한 이벤트와 화려한 무대를 마련해 흥을 돋우며 아쉬움을 달랬다.

시는 내년 강경젓갈축제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 더욱 많은 전국의 관람객들이 강경젓갈과 온 산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황명선 온산시장은 "처음으로 진행되는 온택트 축제로 많은 우려가 있었다. 에도 전국에서 강경젓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시는 덕분에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그러면서 "강경젓갈축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디지털 축제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며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온 산을 대표하는 다양한 축제에 온택트 형식을 도입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논산시, 공감하고 위로받는 힐링 아카데미로 시민의 목소리 듣는다

'2020 논산 시민아카데미'가 누구나,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온라인 방식으로 찾아온다. 논산시는 시민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과 삶의 고민을 나누고 풀어가며 시민들이 서로 공감하고 위로받는 시간을 마련한다.'논산 시민아카데미'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그 동안 수준 높은 인문교양 교육, 세대 맞춤형 교육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강연을 선보여 왔다.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을 한 데 모으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형식으로 전환, 계속해서 평생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들의 고민 수집 이벤트를 운영해 시민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주제를 선정, 해당 전문가를 초청해 온라인으로 시민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는 논산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본 강연은 오는 11월 13일 11월 27일 12월 11일 세 차례에 걸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논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된다.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통이 어려워진 사회에서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함께 나누며 시민들의 의지와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논산시

고정화기자

시민과 생애한 소통하는 2020 논산 시민 아카데미

당신의 고민 함께 나누어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생기는 논산시민들의 고민을 찾습니다. 바로 지금! QR코드와 링크를 통해 당신의 고민을 보내주세요!

※ '논산시청' 또는 '논산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문의: 논산시청 평생교육과 T. 041746-5772-5

사건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상품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1잔 모바일 쿠폰(10명)
기간 2020년 10월 16일(금) - 10월 26일(월) 까지
별도 이벤트 종료 후 당첨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로 전화 공지

시민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주제를 뽑아, 전문가 초청

11/13(금) 11/27(금) 12/11(금) 19:00-21:00

동두천시 송내동 새마을남녀지도자, 연탄나눔 봉사

동두천시 송내동 새마을지도자에서는 지난 17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독거어르신인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연탄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 진행한 이번 봉사활동은 열악한 주거와 난방 환경에 놓인 독거어르신인 난방비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계획됐다.

이번 봉사활동으로 연탄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갑자기 다가온 추위로 인해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막막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연탄 덕분에 난방비에 대한 걱정을 한 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

음을 전했다.조한대 송내동 새마을협의회장은 "많은 분들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침체되고 위축됐지만, 이런 상황 일수록 회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따뜻함이 넘치는 송내동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순일 송내동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송내동 새마을지도자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기부와 후원이 많이 줄어들어, 이번 겨울이 더욱 춥게 느껴질 이웃들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영근기자



'개인[犬人]참고', 성과 자료집과 기념품 받아보세요

30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 선착순 170명에게 성과 자료집과 기념품 배포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을 꿈꾼다면, '개인참고' 자료집과 기념품이 필수다.청주동물문화센터에서 운영한 '개인[犬人]참고'를 마무리하며 오는 30일까지 기간의 성과가 담긴 성과 자료집과 기념품을 배포하는 '반려견, 함께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개인[犬人]참고'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20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반려견, 마주하게 반려견, 만들어보게 반려견, 함께 하게 등 총 3개 프로그램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됐다.

이중 '반려견, 마주하게'는 사람과 반려견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주시민과 반려동물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반려견 공동 팀메이트가 활동을 이어왔다.또한 '반려견, 만들어보게'는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을 꿈꾸는 이들이 목공 클래스를 통해 손수 제작한 놀이기구로 반려견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놀이기구 목공과 팜아트 컬러링, 현웃 리폼, 수제간식 쿠키 클래스가

진행되는 동안 약 1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견을 위해 옷, 간식 등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너무도 소중한데 앞으로 반려동물과 인간의 공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기획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청주동물문화센터는 이달 중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전시와 체험, 마켓 등이 함께 열리는 생활문화 페스티벌 '반려견, 함께하게'를 통해 시민들과 결과물을 공유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성과 자료집과 기념품 배포로 대신하기로 했다.성과 자료집과 기념품 신청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하며 온라인 120명, 오프라인 50명 총 170명에게 선착순으로 배포한다.온라인은 동부창고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되며 오프라인은 동부창고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다만, 온오프라인 신청자 모두 24일부터 30일까지 동부창고 34동 사무실 직접 방문을 통해 수령해야 한다.청주동물문화센터는 성과 자료집과 기념품 배포 외에도 '반려견, 만들어보게'를 통해 동부창고 36동 주변에 조성한 반려견 휴식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세종시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사진공모전 '다가치짜자' 개최

2020년 무지개다리 사업 문화다양성 사진공모전

다가치짜자

2020. 10. 19(월) - 11. 15(일)

신청자격 문화다양성에 관심있는 세종시민 누구나
대상(문화다양성): 1명, 100만원
최우수상(다가치짜자): 2명, 각 70만원
우수상(다가치짜자): 2명, 각 50만원
장려상(다가치짜자): 3명, 각 10만원

공모분야 및 시상내역
1. 우리 일상에서 발견하는 문화다양성 대상(문화다양성): 1명, 100만원
최우수상(다가치짜자): 2명, 각 70만원
우수상(다가치짜자): 2명, 각 50만원
장려상(다가치짜자): 3명, 각 10만원

문화다양성 공공예술 프로젝트
-문화다양성 버스- 포차 이벤트
장려상(다가치짜자): 4명, 각 10만원
장가상(다가치짜자): 10명, 기념품(포차카드)

※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문화재단 홈페이지(www.sjcf.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달 15일까지 접수, 총 상금 410만원 22개 작품 선정

세종시문화재단은 19일부터 문화다양성 사진공모전 '다가치짜자'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참여를 통해 지역 내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을 실현하고자 기획됐으며 공모분야는 우리 일상에서 발견하는 문화다양성 공공예술 프로젝트 '문화다양성 버스' 포차 이벤트 등 2개 분야로 진행된다.문화다양성에 관심 있는 세종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 자격으로 분야별 1개 작품씩 총 2개까지 출품할 수 있다.참여방법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진 파일과 함께 이메일로 송부

최재은기자

부여문화재야행 무형유산 온라인 한마당 축제

2020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기획공연 및 인문학콘서트 다채

부여군은 오는 23일부터 개막해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2020부여문화재야행의 둘째날인 10월 24일 저녁 6시 30분부터 부여 무형유산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

보부상 인문학 콘서트와 부여 무형유산 브랜드 기획공연으로 나누어 펼쳐지는 무형유산 한마당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로 연기해 모두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된 부여군은 국비 1억원을 확보해 지정 무형문화재 및 비지정 무형유산에 대한 목록화 연구, 영상기록화, 인문학콘서트, 교원연수, 기획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부여군 무형유산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부여군 무형문화재의 소개와 연구실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1부 '보부상 인문학콘서트'에서는 그 유래와 전통에 있어 학술적 가치를 높이고 인정받고 있는 부여 보부상 이야기를 비롯해, 난전놀이 등 보부상 전통 놀이와 가락의 재현, 부여청소년보부상단의 퍼포먼스등 보부상을 매개로한 신명나는 과거와 현재가 융·복합된 공연이 펼쳐진다.

2부 '무형유산 브랜드 기획공연'은 현재 부여의 6개 무형문화재에 대한 영상과 해설을 통한 소개와 충남 무형문화재 제17호 내포제시조, 충남무형문화재 제28호 세도두레풍장, 충남무형문화재 제4호 산유화가 시연공연이 펼쳐진다.이어서 부여사랑 합창단이 우리의 얼과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노래들을 선사한다.이밖에도 부여의 무형유산 한마당은 1400여년전 일본에 훗 핀 한류원조로서 백제의 정신과 숨결이 담겨있는 '백제미마지 공연'으로 이어져 깊어가는 가을 밤 집에

서 가족들과 함께 부여 문화재야행 공식 홈페이지와 부여군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부여의 무형유산에 흠뻑 빠져볼 수 있다.

2020부여문화재야행은 24일까지 부여군청 유튜브 채널과 부여 문화재야행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만나볼 수 있다.

고정화기자

부여 문화재 야행 2020

10.23. - 10.24. 18:00 - 23:00

www.부여문화재야행.com

성장현 용산구청장,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약속

용산구, 제27회 구민의 날 기념식 성료

“온전한 국가공원 조성을 위해 잔류시설을 이전하거나 재배치해야 합니다.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지난 16일 용산공원 개방부지(옛 장교숙소 5단지, 서빙고로 221)에서 열린 ‘제27회 용산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기념사를 통해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약속했다.

성 구청장은 “용산공원 북측 미대사관 직원 숙소도 아세아아파트 개발지역으로 옮기도록 계획을 조정, 녹지축 단절을 막고 주민 공원 접근성을 개선했다”며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용산이 나서서 방안을 찾고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구청장은 이봉창 의사 기념관 준공 소식도 알렸다. 그는 “오는 21일 효창동에서 나고 자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의 심장부에 목숨을 던진 독립영웅 이봉창 의사 기념관이 준공된다”며 “기념관을 방문해 의사를 추모하고 독립투쟁 기개를 되새겨 달라”고 주민들에게 요청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가진 자산을 잘 보존하고 용산구의 색깔을 더해 역사문화도시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정책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성 구청장은 “지난 8월에 준공된 청년 커뮤니티공간 ‘청년지움’과 용산의 혁신성장을 견인해 줄 청년기업 입주 공간인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조성을 마치고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여가를 펴고 높이 날아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선언했다. 개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성 구청장은 “용산 곳곳의 개발 사업이 모두 순항중”이라며 “한남뉴타운 전체는 순풍이 불어 한남동 일대가 전지 개발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무려 1800억원이 투입돼 효창공원을 대한민국 정체성의 상징으로 발돋움하게 할 독립운동 100년 기념 공원 사업이 용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구청장은 ‘뜨거운 감자’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관해서도 논했다. 그는 “남북철길이 연결되면 유럽의 문명이 바로 용산이고 그 중심에 국제업무단지가 있다”며 “국제 경제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정부로서 더욱 강력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날 기념식은 116년 만에 우리

품으로 돌아온 용산미군기지(용산공원)에서 열린 첫 지자체 공식 행사로 눈길을 끌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구는 비대면 형태로 행사를 진행, 참석인원을 최소화시켰으며 행사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용산구민의 날은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처음 생긴 1946년 10월 18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구는 지난 1994년부터 10월 18일을 전후해 매년 기념식을 이어오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공원 개방부지에서 역사적인 구민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며 “더불어 행복한 용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13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조병옥 음성군수, “2021년 본예산 과감한 구조조정 필요”

조병옥 음성군수는 19일 “내년도 본예산 작업 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다시 한번 따져서 버릴 것을 과감히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적인 예산 편성을 하라”고 군청 전 공직사회에 당부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와 함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까지 입으며 세 차례의 세출 구조조정, 지방채 발행 등 정상적인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또 “이러한 상황은 내년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만큼, 변화된 행정 여건과 환경에 대응해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과 시책 중 효과가 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2021년 운영 개시 예정인 공공시설과 관련해서도 조병옥 음성군수는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준

공하고 개관 예정인 생활문화, 평생학습 관련 주민편의시설이 많이 있다”며 “계획기한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미리 준비하며 꼼꼼히 점검해 운영 개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음성군이 2021년 운영 개시 예정인 주민편의시설로는 올해 말 준공,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오감만족 새책 체결장 맹동혁신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이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평생학습관 대소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마무리돼 개관할 예정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밖에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중단됐던 관내 전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11월 5일부터 재개한다”며 “시장상인회를 비롯한 단속구간 내 상점주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반드시 안내하고 모든 군민이 충분히 숙

지하도록 마을 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만식/기자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전남형 공영도매시장 도입·신안 해상풍력사업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수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전남형 공영시장 도매인제 도입 필요성과 신안 해상풍력사업의 어민피해 및 보상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공영시장 도매인제도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력에 근거해 최저가격을 보장할 수 있어, 생산자와 공영시장 도매인 간의 거래로 인해 유통단계와 가격 변동성이 줄어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확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농산물 거래 가격의 기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수료 부담, 거래방법 위반 등의 한계가 있어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와 유통 주체 다양성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농산물 주산지 별로 생산물량 출하조절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자 단체와 행정조직의 계약에 있어 전남도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해야 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루이코노미의 핵심인 신안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어민들의 피해와 보상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김 의원은 “피해대상은 신안군민이지만 이익은 타 자치단체가 챙겨가는 정책 추진은 적극반대한다”고 주장 하면서 “어업 금지구역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대책, 주민 수용성 및 보상대책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도지사는 “2030년까지 48조원

이 투입 예정이며 어업에 지장이 있을 시 선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민관 협의회를 통해 어민들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해상풍력활성화 및 지원 법안이 준비 중에 있고 지속가능한 어업대책 마련과 피해지역인 자은, 지도, 중도, 임자에 기르는 어업단지를 육성하는 등 어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의원은 “신안군 해역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인공어초가 투하되고 있지만 풍력단지가 들어서도 인공어초 효과가 있는지 용역을 실시해 사업을 재검토 할 것과 ‘도정질문에서 나온 전남도의 대책이 반드시 이행될 것’을 당부했다.

김영만/기자

서각 작가 조승래 씨, 철암 단풍 조형물 기증

철암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서각 작가 조승래 씨가 철암동 단풍군락지에 단풍 조형물을 기증했다.

조승래 작가는 철암에서 태어나 철암초·중학교를 졸업하고 다수의 서각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대한민국 각자 협회 이사 및 태백지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10시 철암 단풍군락지에서는 류태호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 의원, 철암동 사회단체장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형물 제막식이 열렸다.

해당 조형물은 가로 70cm, 세로 180cm 적중으로 조승래 작가의 철암에 대한 애정과 헌이 깃들여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금년도 철암 단풍축제가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는 가운데 세워진 조형물은 철암 단풍군락지의 새로운 포토존으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태호 태



백시장은 조형물을 기증한 조승래 작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단풍이 곱게 물든 가운데 이를 더욱 돋보이게 해 줄 조형물까지 세워져 모처럼 단풍 군락지를 찾는 방문객들이 반갑게 맞이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주)남흥 박남훈 대표, 여수시 동물복지 구현 성금기탁

(주)남흥 박남훈 대표가 여수시에 동물복지 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주)남흥 박남훈 대표가 여수시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여수시 동물복지 구현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윤혜옥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주)남흥은 산업자재를 수입해 여수산단에 납품하는 업체로 동물복지 관련 기부금기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이날 전달받은 기부금을 여수시 유기동물

복지를 위한 유기동물보호소 시설보수 공사와 보호소 사료 및 소모자재 구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여수시 유기동물보호소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기탁해주신 (주)남흥 박남훈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기부금이 여수시 동물복지 구현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감동양주
신성장·새 지평

함께하는 감동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Yangju
양주시

전남도, 자연순환농법 커피재배로 역대 소득 '화제'

'마이크로맥스 영농조합법인',
국내 최대규모 커피 재배

5년째 유리온실 등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인 2만 그루의 커피나무를 자연순환농법으로 재배한 농가가 역대 소득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화순에 소재한 마이크로맥스 영농조합법인이 화제의 주인공이다. 차 대표는 단국대학교에서 커피로 석사 학위까지 취득해 연간 10톤의 커피를 생산한 커피분야 전문가다. 또한 호기성 미생물을 활용한 가축 사체처리와 환경정화시스템 구축도 겸하고 있어 토양, 수질정화 등 관련 특허만 20개 넘게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전문지식을 활용해 자연순환농법을 적용시켜 지난 2016년부터 커피를 대량 재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자체 개발한 미생물 등을 이용해 재배한 커피는 맛과 향이 뛰어나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 또한 추출방법과 기구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차상화 대표가 재배한 커피는 에티오피아가 원산지인 아라비카종으로 재배 적정기온은 10~30°C지만 유리온실에서 재배해 저비용·고소득 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여름에는 자체 개발한 기구로 유리온실 내부에 안개 입자의 물을 분사한 뒤 팬으로 공기를 외부로 뽑아내며 온도를 낮춰,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보다 연간 400만원 가량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겨울에도 내부 온도가 5°C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난방비는 200만원이면 충분하다.

여기에 커피는 특별히 관리할 병해충이 없고 온실 내부에 잡초가 자



라지 않아 노동력도 적게 든 편이다. 토양에는 커피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나뭇잎과 줄기, 가축분뇨, 호기성 미생물 등을 섞어 직접 만든 퇴비만을 사용한다. 보통 퇴비는 생산에 2~3개월이 소요되나 직접 고안해 특허까지 받은 '인자제어 퇴비화 장치'와 '미생물발효기술'을 이용해 열을 이면 생산이 가능하다. 차 대표는 "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능성 유기농 스페셜 커피를 생산하는 게 목표다"며 "앞으로 친환경 커피전문 교육관을 설립해 재배기술 연구와 한국커피등급기준 연구보급 등 전문

가 양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수확한 커피는 화순군 도곡면에 위치한 교육·체험·창업컨설팅 기능을 갖춘 '두베이커피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연간 수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최연소 국가대표 바리스타 출신인 김수민 팀장이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이정희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유기농 중심의 품목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특용작물을 집중 지원·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인천 동구, '온라인 해외무역사절단' 중양아시아 시장 진출 추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

인천 동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 및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온라인 상담회를 마련하고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외무역사절단'은 당초 해외에 나가 대면 마케팅으로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바이어와의 교류가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해외 무역사절단'으로 대체하고 화상 수출상담, 기업 제품홍보 영상 등을 활용한 마케팅 효과 극대화로 신흥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 해외 수

출상담회는 인천 동구 내 중소기업 관계자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현지 바이어들이 참가한다. 구는 이번 상담회를 위해 지난 7월 하순 이에 참여할 관내 중소기업 7개사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바 있다.

오는 10월 30일까지 주민행복센터 2층 소회의실에 화상 수출상담장에서 현지 바이어와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동구, 해외 민간 네트워크, 동역관 간의 비대면 3자 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언택트 마케팅 시범 추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동구,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위한 사업발굴보고회 개최

인천 동구는 금창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을 위해 지난 16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 추진단 사업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동구 도시재생추진단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 안전도시국장 및 23개 협업·연계 부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한 원도심에 주민 주도로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리며 가꾸어 가는 사업으로 구는 이번 보고회에서 성공적인 뉴딜

사업 공모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15개의 지자체 자체사업과 중앙부처 연계사업을 발굴해 보고했다. 구는 내실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해당 구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주민설명회,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금창동 일원 학교 및 유원기관과의 MOU 추진,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 생활SOC 사업 발굴 등을

통해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준비를 착실히 진행 중이다.

구 관계자는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민이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담당 부서뿐 아니라 동구 도시재생추진단 모든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종합행정이 필요하다. 보고회에서 발굴된 사업들이 지속 가능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사업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친환경 고효율 연료전지 국산화에 가속화

강경성 산업정책실장, 韓-美 합작기업인
블룸SK퓨얼셀 구미공장 개관식 참석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20일 구미에서 열린 '블룸SK퓨얼셀 연료전지 제조공장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구자근·이원욱 국회의원, 구미시, SK건설, 블룸에너지, 협력업체 등 정부, 지자체,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외국계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 연료전지 제조공장 개관을 축하했다.

정부는 제2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경제의 주요축인 발전용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수소경제위원회 직후 금번 연료전지 제조공장 개관을 통해 관련 산업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첨단 신재생에너지 기업 블룸에너지와 SK건설의 합작법인의 생산공장이 국내에 준공되어 기존 업체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기술개발, 연료전지 단가절감 등 산업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신규 제조업 공장을 유치해, '27년까지 고용인원을 400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130여개 국내 소재·부품업체와 협력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22년 HPS 제도 도입 추진을 통해 정부가 친환경 분산 전원인 연료전지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밝히고 연료전지 업계도 그린뉴딜 실현을 위해 친환경 수소의 활용을 확대하고 연료전지 기술을 응용해 수소경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금번 개관식에서 블룸SK퓨얼셀은 그간 완제품으로 수입하던 블룸에너지 연료전지의 국산화를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구미공장을 제3국 수출 전진기지로서 삼을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블룸SK퓨얼셀은 연료전지 분야 국내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블룸에너지 본사 납

품을 포함해,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한편 금번 개관식에 참석한 SK건설, SK이드랜스드, 블룸에너지 3사는 울산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활용한 SOFC 발전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추출수소가 아닌 부생수소를 SOFC의 연료로 성공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연료전지의 친환경성을 더욱 개선하고 향후 그린수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수요기반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블룸에너지와 SK건설은 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해 수소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에 활용될 수 있는 수전해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하는 의지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SK건설은美 Equinix사의 데이터센터용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했으며 이를 계기로 친환경 분산전원으로서 미국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연료전지 발전 시장에 적극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찬기자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26일까지 입주기업 공개모집

경상남도관광재단가 오는 26일까지 경남 관광산업의 미래를 함께할 도내·외 관광 분야 입주기업을 공개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예비 관광스타트업', '지역혁신 관광스타트업', '지역상생 관광벤처' 등 3개 분야이며 선정규모는 총 12개 내의 기업이다. 관광과 관련한 창업 아이템으로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부터 경남 소재 창업 7년 미만 사업자, 한국관광공사의 관광벤처공모전에 선정된 창업 3년 이상 사업자 등이 모집 대상이다. 최종 선발된 창업자에게는 창원 문성대학교 경상관에 조성 예정인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창업공간과 임대료 및 관리비 6개월 지원, 맞춤형 교육 및 전담멘토링 등 역량강화 교육이 제공되며 우수 선발자에게는 내년 상반기 평가를 거쳐 1,000만원~3,000만원 상당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상남도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가 전국을 대

표하는 관광창업 메카로서 자리 잡

정문호기자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공개모집**

입수기간: 2020. 10. 5(월) ~ 10. 26(월) 16:00까지
 입주공간: 창원문성대학교 경상관(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촌로 9) 1층
 모집분야: 예비 관광스타트업, 지역혁신 관광 스타트업, 지역상생 관광벤처
 지원혜택: 창업공간, 임대료 및 관리비, 사업화 자금, 교육 및 컨설팅 등 ※ 상세내용 공모문 참조
 지원방법: 이메일 접수 tsc2020@gnto.or.kr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접수문의: 경상남도관광재단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055) 212-6838, 6844, 6847

사업설명회 개최

일시: 장소 2020. 10. 13(화) 14:00 / 창원컨벤션센터 301호
 대 상: 관광분야 창업 및 입주 희망자, 창업관련 유관기관 담당자 등
 내 용: 사업소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질의응답 등
 참여방법: 전화 사전신청 필수 (055) 212-6844, 6847
 2020. 10. 12(월) 16:00까지 신청순 30명



시민행복 도시미래

스마트시티 구축, 도시재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공영주택건설 까지
시민이 행복한 도시의 미래가 대구도시공사에서 시작됩니다.

www.duco.or.kr

 대구도시공사

